소년단

1964·9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1일-조선 인민 혁명군 장백현 대덕수 전투. (1936년)
△2일-조선 인민 혁명군 장백현 소덕수 전투. (1936년)
△3일-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대동강에서 격파 (1866년)
△6일-조선 인민 혁명군 동녕현성 진공 전투. (1933년)
△7일-열렬한 애국 투사 김 용범 동지 서거. (1947년)
△8일-탁월한 군사 전략가이며 김 일성 원수님의 가장 친근한 전우의 한 분이신 강 건 동지 서거. (1950년)
△9일-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948년)
△16일-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 (1921년)
△20일-광부절.
△22일-항일 빨찌산 투사이며 김 일성 원수님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김 정숙 동지 서거. (1949년)
△26일-조선 인민 혁명군 휘남현성 전투. (1937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1964

9
1964

차례

(이것을 아십니까?)

표지 1 면—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승 원배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전 희

정직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르고 말한 대로 행동하며 약속한 것을 어김 없이 실천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사회와 인민들 속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에서 믿음성이 없는 사람은 사회와 인민들 속에서는 물론 동무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사업과 생활에서 서로 믿고 도와 주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있어서 귀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이 어떻게 조직 앞에 정직했는가를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은 용서 못 한다.》

아동단 규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이 규률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였습니다.

1934년 연길현 동우거우라는 곳에서 우리가 아동단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공청 회의나 다른 비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동단원들이 그날 보초를 섰습니다.

하루는 아동단 지도원으로부터 보초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래 마을에서 올라 오는 오솔'길과 큰동거우에서 넘어 오는 길 옆에 곤봉을 들고 보초를 섰습니다.

그 날밤 보초 임무를 끝내고 모여 앉아 총화를 질 때였습니다.

《…난 조직에서 준 보초 임무를 잘 실천하지 못 했습니다. 경각성 없이 보초를 섰기 때문에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만일 이 때 적들이 기여 들었다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봉녀는 아동단에 입단하던 날 붉은 기'발 앞에서 아동단 규률을 잘 실천하여 참된 아동단원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을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봉녀 동무는 늘 경각성 높은 아동단원이라고 분단 앞에서 칭찬을 받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련락 임무를 실천하느라고 몹시 피곤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숲 속에서 보초를 서다가 약간 실수하여 존 것을 조직 앞에 숨김 없이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 봉녀의 착한 마음씨에 모였던 아동단원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줄 것으로 바래서는 잘못입니다. 바로 봉녀 동무처럼 자신의 투쟁으로써 정직한 마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던 지도원의 말씀이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때 마을 아동단원들은 모두 나어린 동무들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동단원들 속에서는 남보다 자기를 내 세우려고 하거나 공명심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릇된 일들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동단원들이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에서 선전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동단 지도원에게 선전 사업 정형을 보고할 때였습니다.

《…잘 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은 용서 못한다.

—아동단의 규률 조항에서—

옆집 할머니와 둔덕집 할아버지에게 일제놈들과 그의 앞잡이 지주, 자본가놈들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산다는 것과 그 놈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합쳐 빨찌산 아저씨들을 힘껏 도와 나서야 한다는 선전을 할 임무를 금옥 동무가 맡았던 것입니다.

금옥 동무는 옆집 할머니에게는 어린 동생을 업고 놀러 가는 척 하면서 찾아 가 선전하였으나 둔덕집 할아버지네 집에는 놈들의 경계가 심하여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옥 동무는 이것을 조직 앞에 말할가 말가하고 망설이다가 조직 앞에 그대로

서슴 없이 말했습니다.

금옥 동무의 보고를 들은 지도원은 웃는 얼굴로 《금옥 동무는 조직의 위임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 했지만 자기가 한 일을 꾸밈 없이 그 대로 조직 앞에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바로 금옥 동무처럼 언제나 거짓말이 없고 있는 사실을 그 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 대로 말하지 않고 칭찬이나 받으려고 조직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혁명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여 먹고 사람을 착취해 먹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 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짓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처럼 정직한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은 공산주의 건설의 주인이 될 여러 분들에게 있어서 더욱 귀중합니다.

여러 분은 어려서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또는 동무들 사이에 자기 행동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지식이 풍부하고 훌륭한 도덕 품성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 하고 소년단 사업에 더 잘 참가하여 모두가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모범 소년단원으로 자라야 합니다.

소년의 대답

~남부 월남의 한 소년에게~

(월남) 제 형

원쑤들은 소년에게 물었다
—공산당원이 어디 있느냐?
소년은 대답했다
—나는 많은 다정한 분들을 보았을 뿐,
평화가 회복되자 헤여졌어요!

원쑤들은 소년을 유혹하였다
—너는 공산당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소년은 대답했다.
—나는 많은 귀중한 분들을 알 뿐,
평화가 회복되자 생활이 더 비참해
졌어요!

놈들은 소년을 위협하였다.
—빨리 말햇! 누가 공산당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당신들을 빼여 놓고 마음씨만 좋으면
누구나 공산당원이라 의심 받지요!

놈들은 소년을 고문하였다.
—네가 바로 공산당원이구나?
소년은 대답하였다.
—나는 조국과 인민 앞에 한 일이 없어요
아직은 공산당원 자격이 없어요!

그 인간 백정 놈들은
꽃송이 같은 이 사랑스런 소년을 학살했다.
하여 소년을 찬양하는 비분에 찬 목소리—
—나이는 어려도, 소년의 마음 공산당원이
구 말구!

우리는 행복해요

어느덧 공화국이 창건된 지도 열 여섯 돐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공화국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까.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학교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배우며 앞날의 희망과 꿈을 안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지요.

그러기에 온 세계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배우며 자라는 우리 공화국의 어린이들을 부러워 한답니다.

편집부는 여기에 조국의 공장, 광산, 농촌 그 어디에 가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소년단원들의 이야기를 몇 토막 소개하렵니다.

우리는 평양 학생 소년 궁전 모형 항공기 연구실에서 평양시 동신 중학교 3 학년생인 리 성순 동무를 만났습니다.

《장차 나는 비행기 설계가가 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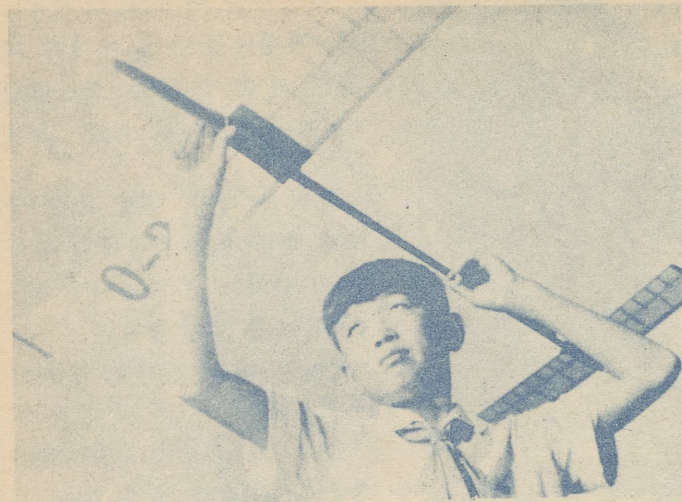
앞날의 희망이 무엇인가고 묻는 우리들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성순 동무는 정말 나어린 《항공기 설계가》이며 《제작가》였습니다.

성순 동무는 학생 소년 궁전 연구 소조원이 된 후 오늘까지 6 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모형 항공기 5 대를 만들었습니다.

성순 동무는 《ㅎ—1 형 활공기》를 만들며 열 세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인내성 있게 끝내 만들어 냈답니다. 그리하여 지난 번 연구 소조에서 조직했던 모형 항공기 경기 대회에서 1 등을 하였답니다. 《그는 지금 제법 미래의 항공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연구 소조 지도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요. 사람이란 언제나 그렇게 큰 희망을 가지고 먼 앞날을 내다 보며 값있게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나 어린 《항공기 설계가》이며 《제작가》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며 그려 본 비행기 설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이였습니다.

《장차 나는 비행기 설계가가 되렵니다.》

조국의 품'속에서 이 나어린 비행기 설계가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동무는 우리가 체육부에서 만난 인흥 중학교 단 김 순희 동무입니다.

순희 동무는 꼬마 롱구 선수였습니다.

장차 조선의 녀자 롱구 선수가 되렵니다.

우리는 날랜 동작으로 공을 련락하는 솜씨에 감탄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희 동무는 장차 조선의 녀자 롱구 선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첫째 가는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고 꾸준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우리 조국에서 순희 동무의 이 희망은 얼마나 아름답게 꽃필 것일가요.

순희 동무는 자기의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롱구 기술을 닦기에 매일과 같이 힘 쓰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도 빠짐 없이 아침마다 1,000 메터씩 뛴답니다.

그리고 줄 넘기를 500 번 이상 하고야 학교에 간답니다.

롱구 선수에게는 재빠른 동작과 대담성, 인내성을 키우는것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궁전 극장에 들렸을 때 거기에는 구경하는 소년단원들과 손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궁전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였습니다.

예술 소조원들은 노래와 춤, 《민족 기악 병창》, 《체육 무용》 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곡목으로 놀라운 재주와 솜씨로 자기들의 행복을 노래하고 춤 추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공연을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어느 곡목이나 다 훌륭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감동시킨 평화 중학교 인민반 2 학년 김 훈 동무와 경상 중학교 인민반 1 학년 황 두남 동무의 사진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올해 열 살 밖에 안 되는 김 훈 동무가 어쩌면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탈가요. 그는 벌써 이런 큰 무대에 나와 공연한 것이 일곱 번이나 된다지 않아요.

더우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황 두남 동무의 아꼬데온 반주였지요.

그는 지금 겨우 아홉 살인데 아꼬데온을 얼마나 잘 타는지 보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하였어요. 그는 독주도 잘 하지만 남이 부르는 노래의 반주까지 제법 잘 하지 않겠어요. 고운 옷차림에 고사리 같은 손을 움직이며 악기를 타고 노래 부르며 춤 추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의 연구 소조실에서 행복에 찬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을 본 우리는 이 번에는 개성 소년 회관을 찾아 갔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회관은 개성 소년들의 기쁨의 집, 행복의 집이였습니다.

수백 명의 소년들이 연구실마다에서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키우고 있었지요. 우리는 미술 연구 소조실에서 개성시 선죽 중학교 3 학년생인 장 승환 동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찾아 갔을 때 그는 개성의 고적의 하나인 선죽교의 그림을 그리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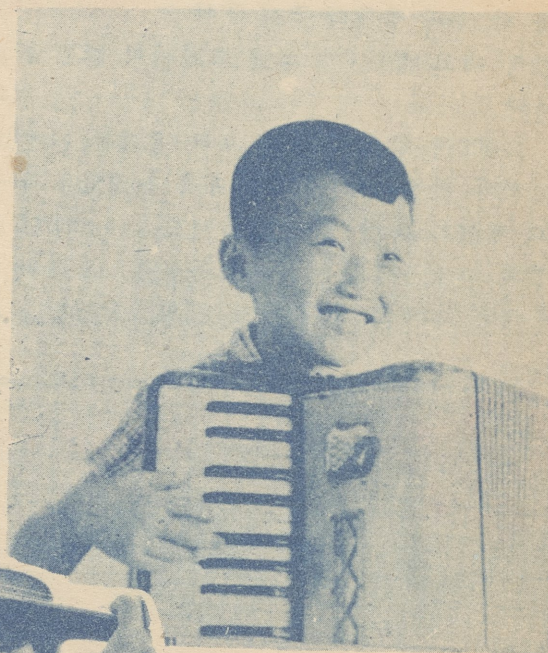
《이 동무가 바로 1962년 분란에서 있었던 제 인민들 간의 친선을 주제로 한 제 8 차 아동 도화 축전 국제 콩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동무입니다.》

연구 소조 지도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 그가 그린 그림은 정말 전문 미술가의 그림 못지 않게 훌륭한 것이였습니다.

승환 동무는 다른 학과목 공부도 잘 하고 그림 공부에서도 아주 열성이 높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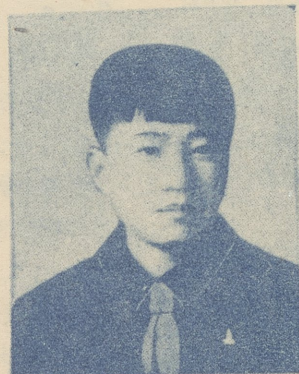
승환 동무는 항상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걸거나 앉아 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도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 바이올린을 타는 김 훈 동무.
↑ 아꼬데온 반주를 하고 있는 황 두남 동무.

어떤 벅찬 건설장의 모습 같은 것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 생각하다가는 수첩 같은 데 간단히 그려 가지고 집에 돌아 와 수채화구로 색을 써 가며 본 것을 그대로 그림에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스쳐 보고 지나는 일이 없답니다. 항상 관찰하고 거기서 특징을 찾아 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그림에 옮겨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 다섯 살이란 어린 나이치고는 퍽 침착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학과목 공부를 하는 외에 그림 두 장씩을 그린답니다. 그리하여 승환 동무가 지난 3 년 동안에 그린 그림들이 1,000여 장이나 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 못 한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 가 그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제8차 아동 도화 축전 국제 콩클에서 입상한 장 승환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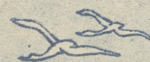
1,000여 장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관찰력이 깊고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1,000여 장의 그림—이것은 승환 동무의 노력의 흔적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장 승환 동무가 바로 이런 동무였기 때문에 1962년 제 인민들 간의 친선을 주제로 한 제 8 차 아동 도화 축전 국제 콩클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고 1963년 전국 학생 창작품 전람회에서 4 건의 그림이 특등, 2등, 3등, 가작으로 당선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 승환 동무를 보면서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제도 하에서 누구나 그처럼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란 장 승환 동무가 앞으로 반드시 훌륭한 미술가가 될 것을 바라면서 그와 헤여졌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공화국의 품은 얼마나 따뜻하고 넓은 것일가요. 그 무엇이건 원하면 원하는 대로 과학자로, 기술자로, 예술가로, 우리를 따뜻이 안아 키워 주는 사회주의 조국—이 조국의 품에서 활짝 꽃피여 날 앞날을 내다 보며 우리들은 더욱 열심히 배우며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당과 조국의 이 고마운 배려에 보답합시다.

(본사 기자)

왜 하늘은 푸르게 보일가요?

동무들은 해'빛이 일곱 가지 색으로 되여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해'빛은 지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공기층을 지나 오게 되는데 공기는 해'빛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흩어지는 색은 푸른 빛입니다. 그러나 노란 빛, 붉은 빛과 다른 여러 빛들은 그 대로 지나 옵니다.

제일 많이 흩어진 푸른 빛이 우리 눈에 들어 오기 때문에 하늘은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

반가와라 이 정경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서 소년단원들의 축하와 인사를 받고—

레위 알리 (뉴질랜드)

연설이 흘러 나왔네……
고요히, 정중하게,
비록 가슴 속에 불을 품었건만,
그러자 한 줄기 류창한 나팔 소리
평양의 어린이들이 발맞추어 들어 왔네,
기'발의 홍수, 생명의 화산,
여섯 명이 연단에 올라
차례로 말하였네.
눈에 반가와라 이 정경.
귀에 달가와라 그 목소리.

말쑥하게 여름 옷차림을 한
귀여운 꽃봉오리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 쟁취하려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였던가!
사랑스러워라,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금방울을 굴리는듯.
랑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소년들,
위풍 당당하여라, 폭탄 같은 열변으로
원쑤를 규탄하고 단죄하는 소년들.
이 말'소리, 이 평화로운 6월의 오후에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리.
그들 번갈아 가며
조선의 이야기를 이어 가네,
조선의 고통, 조선의 열정, 조선의 투쟁.

이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피의 대'가
인가를.
그리고 또 그들은 보냈네,
싸우는 먼 나라 인민들에게
그들의 피끓는 동정과 성원을
가슴으로 야수들을 맞받아
그들의 아버지들이 싸우다 죽은
대동강 기슭
이 모란봉 회의장에서

이 순진한 목소리들 멀리멀리 울려 퍼지리.
여기 모인 우리들 그들을 길이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들, 그 행복스런 얼굴들을
길이 잊지 않으리,
나라에 돌아 가면 그 곳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해 들려 주리
원쑤들도 이 목소리 들으려니
그들 겁나 나동그라져 가슴을 치리
—진실로 증오를 받는다는 건 괴로운 일—
그러나 손님으로 이 나라에 온 우리들에겐
눈에 반가와라 이 정경
이는 새 시대의 희망
우리가 세우려는 새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라네.

1964. 6. 16

(림 학수 역)

(작자는 아세아 경제 토론회에 참가한 뉴질랜드 대표임)

새로운 첫 걸음

김 춘섭

빈 지게를 진 순동이는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 종일 굶다 보니 이제는 배가 고픈지, 쓰린지 모를 지경이였다. 고개'마루에 올라 선 그는 지게를 벗어 던지고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자기네 마을이 눈앞에 내려다 보였다.

김 순동이가 사는 고장은 전라남도 라주군 다도면 마산리 조리촌이다.

스무나무 집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조리촌은 겨우 세 집만이 두세 마지기의 땅을 가졌고 그 외는 모두 소작농이거나 품팔이'군들이다.

순동의 아버지 김 성춘 로인은 이 고장에서 나서 자란 농민으로서 전에는 네 마지기의 땅을 부쳤는데 그것마저 지주놈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초겨울부터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하는 수 없이 봄철이 되자 아버지는 또 멀리 품팔이를 떠나야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순동이는 《수업료》를 물지 못하여 끝내 학교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그는 지게를 지고 삯짐을 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순동이는 씀바귀 무친 것으로 끼니를 에우고 일찌기 읍으로 나갔었다.

장마당 어귀에 다달으니 벌써 지게'군들이 30여 명이나 모여 있었다.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실업자들과 품팔이'군들이 사태처럼 밀리고 있는 판에 어디 가서 하루 단돈 몇 푼 쥐여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노릇이였다.

장마당을 한 바퀴 휘돌았으나 짐을 지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다.

순동이는 초조했다.

《형, 나 배고파 힝》

《보리죽이라도 한 번 실컷 먹어 보문 좋겠네…》 집을 나설 때 두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애처로운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빈 손으로 돌아 가진 않을테다.》 그는 입을 다시금 앙다물었다.

이 때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장마당으로 들어 가더니 나무를 몇 단 사는 것이였다.

《누가 짐을 져다 주겠소?》 그 사나이 한데서 이런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수십 명의 지게'군들이 우 밀려 갔다.

《내가 지겠소다.》

《아니오, 내가 먼저 왔소다.》 지게'군들 사이에서는 서로 승강이질까지 벌어졌다.

순동이도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재빨리 달려 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무심'결에 누구의 지게'다리에 이마를 얻어 맞았다.

이마는 밤톨 같이 부어 올랐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순동이에게는 짐이 차례지지 않았다.

어른들이 와 덮치는 바람에 그 틈에 끼울 수도 없었다.

(오늘도 또 헛걸음을 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져 가고 있었다.

지게'군들은 하나 둘 헤여지기 시작했다.

순동이가 맨 나중 장마당 어귀를 나오고 있을 때였다.

한 아주머니가 낡은 농짝을 인 채 땀을 흘리며 걸어 오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 갔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짐을 제가 져다 드리지요.》 순동이의 이 말에 그 아주머니는 한숨을 무겁게 쉬는 것이였다.

《이건 아니예요, 〈농자 대금〉을 래일까지 갚지 않으면 〈차압〉을 한다기에 이거라도 팔가 해서 이고 나왔는데 누가 거들떠나 봐야지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순동이네 사정과 별다름이 없었다.

(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못 살아야 하는가, 일 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어야 하는가?

왜 우리 농사'군집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지게품을 팔아야 하는가?)

날이 갈수록 순동이의 가슴 속에는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났다. 그는 이 의문을 풀어 보려고 혼자 골똘히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체 풀 수가 없었다.

× ×

고개'등에 앉아 저녁때가 되여도 밥 짓는 연기조차 떠오르지 않는 자기 마을을 바라 보던 순동이는 자리에서 불쑥 일어 섰다.

그는 또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빈 손으로 돌아 온 자기를 쳐다 보며 울먹거릴 동생들의 얼굴을 그려 보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 같이 무거웠다.

그가 돌다리를 건너 자기 집이 있는 산모퉁이를 돌아 설 때이다. 집에서 와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을 재우치던 그는 무춤 멈추어 서고 말았다.

웃마을에 있는 지주놈과 파출소 소장놈이 작년에 갔다 쓴 비료'대며 《농자 대금》(농

사 짓기 위해서 내다 쓴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집 살림살이를 몽땅 몰수하겠다고 을음'장을 놓는 것이였다.

놈들은 어디서 술을 잔뜩 처먹고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씁바퀴와 능쟁이를 다듬는 어머니에게 삿대질까지 하는 것이였다.

순동이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는 것처럼 들먹거렸다. 작대기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어린 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 날 저녁 순동이는 언젠가 마을에 왔던 한 대학생 (신문을 배달하며 피를 뽑아 팔아서 공부한다는 고학생) 이 우리가 잘 살자면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싸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말을 다시금 깊이깊이 되새겨 보았다.

(옳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놈이 바로 저 놈들이구나

저 지주놈이 우리 땅도 빼앗았지, 작년 가을에도 농사 지은 것을 깡그리 앗아 갔지…)

순동이는 자기가 품고 있던 의문이 이제야 풀리는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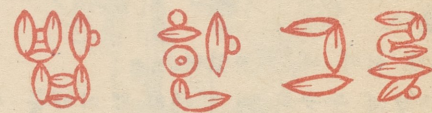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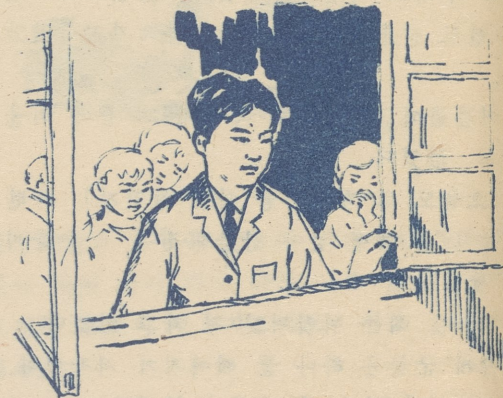
(옳다! 우리가 잘 살자면 저 도적놈들을 몽땅 없애 치워야 한다) 순동이의 눈앞에 아까 호통을 치며 나가버리던 놈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불끈 두 주먹을 쥐였다.

그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증오의 불'길이 펄펄 타고 있었다.

(나는 바로 그런 길로 나가리라.) 순동이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는 이 때부터 자기 또래 동무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지주놈을 때려 부시고 미국 양키를 몰아 내야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시작했다.

순동이는 이렇게 보람찬 투쟁의 첫 걸음을 내 디디였다.

밥 한 그릇

박 명철

출석을 부르고 난 김 복실 선생은 서글픈 얼굴을 지으며 교실 안을 휘 둘러 보았습니다.

풀기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애들, 두 볼이 푹 패여져 파릿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담임 선생을 지켜보며 군데군데 앉아 있었습니다.

결석생이 서른한 사람………그러니 겨우 절반이 되나 마나 한 학생이 출석한 셈입니다.

머루알 같은 눈을 반짝이며 언제나 캐여묻기를 잘 하던 경수도 오늘 아침엔 안 보이고 순복이도, 미륵이도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다니? 정말 딱한 일이지…)

조용히 눈을 깔며 생각에 잠긴 김 선생의 머리에는 며칠 전 애들이 써낸 작문이 줄곧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흘 전 알이였습니다.

김 선생은 자기네 학급 3 학년 4 반 아이들에게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써 낸 작문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가요?

《새들은 훨훨 날아 다닌다. 나도 새처럼 날아 다니면 좋겠다. 낟알이라도 쪼아 먹게 …》

《가을이 오면 엄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 우리가 봄 여름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거둬 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을이 오면 엄마는 자꾸 우신다.

군청 (남조선에서 군을 다스리는 기관)에서 빚을 내라고 성화이고 땅 임자가 자꾸 쌀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자꾸 운다. 동생도 따라 운다. 가을은 정말 쓸쓸하다.》

애들의 이런 작문 가운데 김 선생의 가슴을 쿡 찌르고 눈을 오래 멈추게 한 한 장의 작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작문이라기보다 차라리 그림이라고나 할가……

《형! 거리에 나가면 밥 주나…응?》

어쨌든 어린 가슴을 멍들게 하는 솔직하고도 애달픈 심정을 종이 한 장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김 영수의 작문이였습니다.

《가을은 왜 생겨 났을가?

곡식이 익으라고 생겨 났을 게다.

그런데 곡식은 어디로 가나?

밥 한 끼, 죽 한 그릇 배 불리 못 먹는 우리는 배만 고프다.

그런데 곡식은 어디로 가나?

이 땅 어디든지 쌀은 가 있을 게다.

누구에게? 어느 처마 밑에 가 있을가?

…》

이렇게 몇 줄 내려 쓴 그 애의 글 밑에는 커다란 사발에 수북히 밥이 담겨 있는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몇 번 박아 썼는지 굵직하고 검실한 글이 있었습니다.

경상 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국민 학교》
3의 4 김 영수

영수는 학급에서도 공부에 첫째 가는 애였습니다. 한 번 배워 주면 꼭꼭 기억해 두었고 또 제 힘으로 열 가지를 알려고 무던히 앨 쓰는 아이였습니다.

다 쓴 공책은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그 우에 다시 또 쓰고…

그런데 영수가 끝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교탁을 짚고 이런 생각에 잠겼던 김 선생은 흐려지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더벅머리를 한 한 아이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 서며 포개여 쥔 종이 쪽지를 담임 선생 앞에 내 놓았습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김 선생은 선뜻 그 편지를 받아 쥐고 내려 읽었습니다.

영수가 보낸 글이였습니다.

《…선생님 병들어 앓고 계시던 엄마가 사흘째 굶다가 어제'밤에 죽고 말았어요. 두 살짜리 영근이를 남기고 영영 죽고 말았어요.

애기는 자꾸 웁니다. 내 잔등을 막 쥐여뜯으며 배 고파서 자꾸 웁니다.

선생님! 나는 막내 동생을 업고 그리고 두 동생을 데리고 밥 빌라 갑니다.

작문 시간에 내가 그린 밥 한 그릇—한 그릇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을 보지 못 하는 영수는 하염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6월 24…》

이까지 읽고 난 김 선생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자꾸 괴여 올랐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 선생은 국어과에 나오는 글'줄을 따라 애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삼천리 금수 강산…》이라고 크게 읽어 주었습니다. 애들도 입을 모아 《금수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음과 한숨과 걱정으로 날을 보내는 어린애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 얼마나 많은 의혹과 슬픔에 찬 눈으로 자기를 바라 보며 어린 가슴을 태웠겠습니까!

교실 창문을 활 열면 거리 저 쪽에서 《담배요 담배, 파랑새요, 아리랑이요.》하는 소리와 《구두 닦소 구두요—》하는 애들의 갈린 소리가 들려 오는듯 했습니다.

서른 한 사람의 결석생 가운데 어느 애들은 지금쯤 빈 깡통을 들고 거리 한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다 썩은 고기 대가리를 뒤져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느 료리'집, 국수'집 문 앞에 서서 여윈 손을 내 흔들며 《한 푼 줍쇼…》하고 빌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 선생의 눈에는 애처로운 학생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고 밥 달라고 부르짖는 그 애들의 서글픈 목소리가 가슴을 막 허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무렵 교실 어디에선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선생이 얼굴을 돌리고 바라 보았을 때 창문 곁에 앉은 한 애가 길'가를 바라 보며 울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김 선생은 얼른 담장 너머로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저희 동생을 업고 손목을 끌고 몇 걸음 옮겼다가는 다시 교실 쪽을 바라 보고, 바라 보았다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지나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잔등에 업힌 어린애는 연신 울음을 터뜨리며 밥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얘, 울지 마…울지 마…》

그래도 어린애는 발버둥쳤습니다.

《형! 거리에 나가면 밥 주나…응?》

《…………》

《엄마가 없어서 애기에게 젖을 어떻게 먹이나 응?》

영수의 둘째 동생인듯한 애가 쫄랑쫄랑 형을 따라 가면서 이렇게 연신 물었습니다.

그것을 바라 보는 김 선생과 애들의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했습니다.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랴!

얼마나 학교에 오고 싶었으랴!

영수를 비롯한 수 많은 남조선 애들은 미제와 박 정희 역도들의 발굽 밑에서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작문)

나의 학습장

어느 날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 가려고 교실 문을 나섰을 때였어요.

분단 벽보 주필인 안 윤남 동무가 《얘들아, 잠간만 기다려.》 하고 사무실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후 윤남이는 《소년단》 잡지 8호를 한 아름 안고 나왔습니다.

잡지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나는 잡지를 다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한 장 한 장 펴 보았습니다.

리 병모 영웅 오빠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가 담긴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걸으면서 읽다가 나는 길'가의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영웅 형님의 학습장》이라는 소제목을 읽을 때 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영웅 오빠는 인민반 1학년 때부터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의 학습장을 다 건사해 두었다는데 나에겐 지난 한 해의 학습장도 거의 없습니다.

학습장 표지가 다 떨어지고 글씨도 아무렇게나 쓴 학습장들이였으니 건사해 둘 마음도 없었지요.

나는 병모 오빠가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게 학습장을 정리하였다는 이야기를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병모 오빠가 소년단원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 시간에 먼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학습장을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병모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학습장이 어지러운 아이들은 공부도 잘못합니다. 공부 잘 하는 동무들은 학습장도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건 우리 분단 위원장 동무를 두고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우등생인데 학습장을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어지러운 학습장을 보고 《학습장을 언제나 깨끗이 거두고 곱게 정리해야 돼, 그래야 집에 가면 공부할 마음도 생겨.》 하고 말하군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 나는

《나도 이제부터 병모 오빠처럼 학습장을 깨끗이 거두자. 그러자면 공부 시간에 더러 옆 동무와 소곤소곤 말하군 하던 버릇을 고쳐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마음 다지며 집으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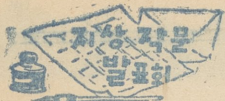
그런데 글쎄 집에 오니 지리 학습장이 마구 구겨져 딩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동생 옥이가 가지고 놀다가 버린 것이였지요.

여느 때 같으면 동생에게 밸풀이를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병모 오빠의 소년단원 시절을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나는 의롱 안에서 얼마 전에 오빠가 선물로 사다 준 새 학습장을 꺼냈어요.

책표지를 하려구요. 책표지를 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나에겐 정말 잘못이 많았습니다. 공부하다가 학교에 갈 적에는

책들을 책꽂이에 꽂아 두지도 않고 책상 우에 아무렇게나 널어 놓고 가서 동생이 마음 대로 가지고 장난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명모 영웅 오빠의 모범을 따라 이 모든 결함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송도 중학교
중등반 2 학년 정 한추

(작문)

비 오는 날

대줄기 같은 비가 작작 소리를 내며 막 퍼붓는 어느 날이였어요.

나는 책가방을 든 채 그냥 마루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비가 좀 멎기만 기다렸어요.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비는 계속 억수로 퍼붓지 않아요.

우산이 있지만 비가 너무 퍼부어서 어쩐지 선뜻 나서고 싶은 마음이 나지를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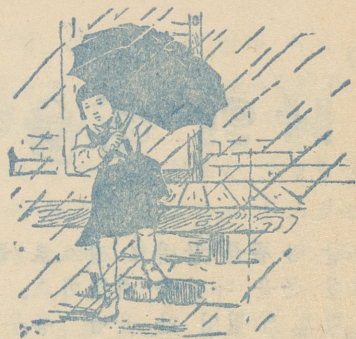
그래서 망설이고 섰는데 문득 《소년단》 잡지에서 읽은 리 명모 영웅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영웅 오빠는 학교에 다니실 때 수업 시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먼눈 한 번 팔지 않고 공부했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비가 온다고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그냥 서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우산을 펴 들었어요.

나는 막 뛰였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학교에 다달은 나는 가슴이 섬찟 했어요. 글쎄 공부를 벌써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첫 시간은 기하였어요.

교실 문앞에 바싹 다가 선 나는 문을 열가 말가 하고 망설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동무들의 눈'길이 일시에 내게로 쏠릴 것은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들어 가지 않으면 학습에 그만큼 뒤떨어지겠고… 나는 망설이다 끝내 들어 가지 못 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기하 시간이였어요.

선생님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전 시간에 배운 문제를 묻는 것이였어요.

나는 선뜻 일어 서서 훌륭히 대답했어요. 동무들은 의아스럽다는듯 나를 바라보는 것이였어요.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여러 번 질문을 받았지만 그처럼 훌륭히 대답하기는 처음이니까요. 더구나 지각해서 배우지도 못 한 내용을 내가 척척 대답하니 동무들은 깜짝 놀란 것이지요.

지각한 날 저녁 집에 돌아 온 나는 명모 영웅 오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영웅 오빠는 공부 시간이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모를 것이 있으면 그 시간에 물어 보아 알군 하였답니다. 영웅 오빠는 모를 것이 있으면 공부 시간에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끝난 뒤에도 선생님이나 동무들을 찾아 가서 알아 보군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다 알고 넘어 갔답니다.

나는 영웅 오빠의 이 모범을 본 받으려고 단단히 결심했어요.

나는 그 달음으로 이웃에 있는 동무네 집에 찾아 가서 그의 도움을 받아 그 날 아침에 배우지 못 한 기하 과목을 공부하고 돌아 왔던 것입니다.

영웅 오빠처럼 학습하면 누구나다 최우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처럼 시간을 아껴 공부하고 그 날 배운 것은 그 날로 알고 넘어 가야겠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나는 영웅 오빠의 학습 경험을 계속 본받아 졸업 시험에서 꼭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개성 지구 개풍군 유릉 농업 학교
중등반 2 학년 최 옥녀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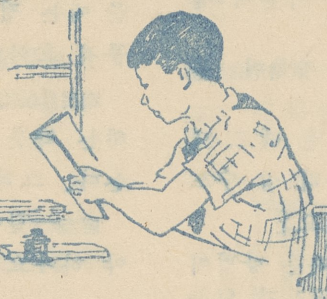
나의 결심

《소년단》 잡지 8 호를 받은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김 세준 동무를 만났습니다.

세준이는 나를 만나자 마자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었는가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그도 아마 그 기사를 읽고 많은 것을 느낀 모양이였습니다.

내가 읽었다고 대답하니 그는 여태까지 읽은 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였습니다.

나는 선뜻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도 그 동안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걷고 있던 참입니다.

내가 미처 대답을 못 하자 그는 명모 형님처럼 책을 열심히 읽었다면 중등반 3 학년이 될 때까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몹시 아수해 하였습니다. 나보다 책을 많이 읽는 세준이가 이러니 나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꼽아 보니 내가 읽은 책이란 불과 몇 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작문 시간만 되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작문을 쓰려면 몇 줄 못 쓰고 딱 막혀 쓸 수가 없었지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나는 이 때까지 마음 속으로 세준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책을 부지런히 읽고는 수첩에다 새로운 말을 적어 넣고 외우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학 이야기 같은 책을 읽지 않는 것이 흠이였습니다.

언제나 나더러 소설 책 읽은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던 세준이도 이것을 몹시 뉘우쳤습니다.

명모 형님이 마을의 전기가 고장 나도 제꺽 고쳐 놓을 수 있은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 아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지 않아요.

나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와 세준이는 앞으로 책을 읽어도 문학책만 읽지 말고 여러 가지 책을 읽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나는 명모 형님처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영웅 형님처럼 수첩을 만들어 느낀 점도 적고 모르는 것도 적어 두겠습니다.

학교에 오니 분단 동무들도 영웅 형님의 소년단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함남 신포시 어항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정 도천

척척 할아버지

수도'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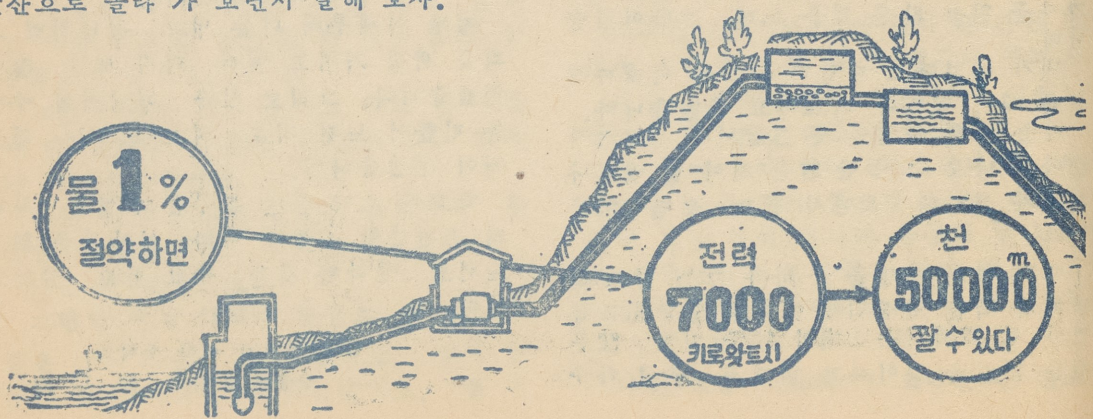
성남—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척척할아버지—이 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 왔느냐?

성남—할아버지, 우리가 매일 먹는 수도'물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애는 강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애는 큰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척척할아버지—수도'물은 역시 강물이 옳다.

성남—할아버지, 전 번 비가 올 때도 대동강 물은 몹시 흐리였는데 우리 집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맑던데요?

척척할아버지—그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우리 저기 수원지가 있는 앞산으로 올라 가 보면서 말해 보자.

일동—예!

척척할아버지—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저기 보이는 수원지에다 강물을 끌어 들여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걸른 거란다. 저기 호수 같은 것이 있지. 저것을 침전지라고 하는데 저기에 물을 몇 시간 가만히 넣어 두면 나쁜 것들이 모두 가라앉는단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보이는 려과지라고 하는 데로 물을 통과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저 관을 통하여 이 쪽 높은 곳에 보이는 배수지라고 하는 데에 끌어 올렸다가 너희들의 집에까지 보낸단다.

병호—할아버지, 그런데 수원지의 물은 어떻게 끌어 들이나요?

척척할아버지—저기 둥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 저것들이 우물들인데 저렇게 우물을 파 놓고 거기에 스며 들어 오는 물을 푸는 것도 있고 또 흘러 가는 강물을 그대로 끌어 들이는 그런 것도 있단다.

성남—그런데 할아버지, 강물을 그대로 쓸 때는 전번처럼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몹시 흐리면 어떻게 하나요?

척척할아버지—그럴 때에는 류산반도라고 하는 약을 용액으로 만들어 흐린 물에 넣는다. 그러면 아주 빨리 맑아진단다.

병호—할아버지, 그런 약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척척할아버지—허! 병호가 아주 세밀히 파고 드는구나. 보통 강물이 제일 많이 흐리였을 때 물 1m³에 류산반도를 약 350 g 정도 넣으면 된단다.

성근—물은 얼마나 오래 침전지에 두나요?

척척할아버지—약 세 시간 동안이면 넉넉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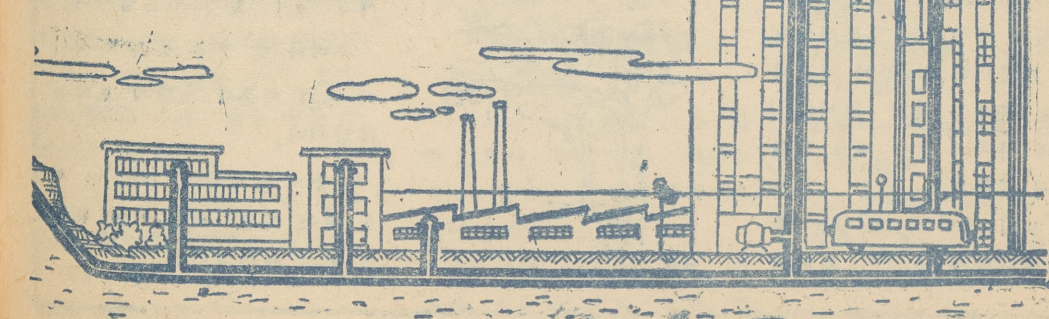
성근—그리고 할아버지, 아까 려과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나요?

척척할아버지—옳아, 그게 알고 싶을테지. 그것은 콩크리트로 만든 통인데 거기에는 밑으로부터 차례로 굵은 자갈, 작은 자갈, 굵은 모래, 가는 모래를 겹겹이 깔고 그 우에다 물을 넣어 물이 밑으로 스며 내려 가게 만들었단다. 여기에는 숯도 넣을 수 있다. 숯은 구멍이 숭얼숭얼 해서 나쁜 물질들을 빨아 들이니까. 황해도 벌방 지방에 가면 가정에서 독을 리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물을 깨끗이 받아 먹는 집들이 있단다.

병호—정말예요. 방학 때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봤어요. 수도'물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구만요.

척척할아버지—그럼.

성남—할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저절로 스며 내려 가게 해서 언제 그 많은 물이 다 깨끗해지게 하겠어요?

척척할아버지—그러기 기계의 힘으로 빨리 스며 내려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깨끗이 걸른 물도 또 다시 소독해야 우리가 먹게 된단다.

근일—깨끗해진 물을 또 소독해요?

척척할아버지—그렇구 말구.

성근—할아버지, 그래야 물 가운데 있는 세균들을 죽이지요?

척척할아버지—옳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표백분이나 액체 염소 같은 약을 써서 소독해야 한다. 이렇게 소독한 물을 이 번에는 펌프로 높은 곳에 있는 배수지로 끌어 올려서 관을 통해 곳곳으로 보낸단다.

성남—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련통관의 원리로 저 높은 데 있는 배수지의 물이 높은 아빠트들까지 올라 갈 수 있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척척할아버지—옳다. 련통관의 원리를 다 아는 걸 보니 공부를 많이 했구나.

병호—할아버지, 련통관의 원리가 뭐나요?

척척할아버지—성남이가 대답해 보렴.

성남—련통관 안의 액체는 언제나 같은

높이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척척할아버지—옳다. 그러니까 배수지는 물을 저장했다 보내는 곳이지만 물을 일정한 높이에까지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근일—그러면 배수지는 항상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겠구만요?

척척할아버지—그래 그럴 수 있지…

병호—아니 할아버지, 그러면 학생 소년 궁전 같이 배수지보다 더 높은 집들은 어떻게 하나요?

척척할아버지—옳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저렇게 특별한 집들은 따로 그 집 밑에 펌프를 놓아 물을 올려 보낸단다.

성남—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물이 우리 집 수도로 나오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는구만요.

척척할아버지—그렇다.

근일—할아버지, 그리고 전기도 많이 들겠지요?

척척할아버지—그렇구 말구, 우리들이 먹고 쓰는 물 1 m^3를 생산하자면 전기 330 왓트가 소비되는데 평양시에서 사는 매 집에서 쓰고 있는 물 1%만 절약한다면 약 7,000 kw/시의 전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만약 이것을 천 짜는 공장에 돌려 준다면 약 5만 메터를 짤 수 있단다.

성남—할아버지, 그러니까 수도'물은 매우 귀중하고 또 아껴 써야 하겠군요.

척척할아버지—아마 너희들은 수도전 하나를 하루 종일 계속 열어 놓으면 26 m^3의 물이 나온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일동—앞으로는 꼭 수도'물을 아껴 쓰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척척할아버지—응, 그래야지…

일동—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척척할아버지—또 오너라.

이것을 아십니까?

사과는 익으면 왜 빨개집가요?

우리는 처음에는 록색을 띠고 있던 사과가 차차 익어 가면서 빨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가요?

사과의 껍질에는 엽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가 점점 크고 익어 가면서 엽록체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빛을 받아 잡색체라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잡색체에는 황색, 적색, 등색 등 여러 가지 색소를 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가 발갛게 되는 것은 그 열매 중의 잡색체에 적색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귤 같은 것은 황색이 더 많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식물의 열매들이 익으면 색을 띠는 것은 모두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문제 1】

산 수 (인민반 4 학년)

1. 명수란 무엇이며, 무명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아래의 수'자 가운데서 명수와 무명수를 찾아 보시오.

7mm, 100m, 1, 235, 3dm, 8t, 2kg 600g, 200, 5 원 10 전, 24 전, 2368.

2. 단명수와 복명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아래의 수'자에서 단명수와 복명수를 찾아 보시오.

2m, 20kg, 3 원 20 전, 27 전, 1t 250kg, 40g, 2636 원, 1 전, 8km 800m.

3. 다음의 글에서 복명수를 단명수로 고치고 단명수를 복명수로 고쳐 보시오.

동해의 가장 깊은 곳은 3669m이고 백두산의 높이는 2km 744m입니다.

【학습 문제 2】

국 어 (인민반 4 학년)

1. 다음 단어들을 읽어 보시오. 어떻게 읽어야 할가요?

훈련, 근로자, 단련된, 천리마, 선로반, 천리 만리, 관리원, 곤난.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1〕

1. 7mm, 100m, 3dm, 8t, 2kg 600g, 5 원 10 전, 24 전 등과 같이 길이, 무게, 돈의 단위 등을 각각 나타낸 수를 명수라고 하며 아무런 단위의 이름이 붙지 않는 수 1, 235, 200, 2368 등과 같은 수를 무명수라고 합니다.

2. 단위의 이름이 하나 붙어 있는 수를 단명수라고 합니다.

례; 2m, 20kg, 40g, 2636 원, 27 전.

복명수는 단위의 이름이 둘 또는 그 이상 붙어 있는 수를 복명수라고 합니다.

례; 3원 20 전, 1t 250kg, 8km 800m.

3. 3669m＝3km669m

2km744m＝2744m

〔학습 문제 2〕

1. 어떤 때나 앞에 《ㄴ》 받침 아래에 《ㄹ》이 올 때에는 《ㄴ》 받침을 《ㄹ》 받침으로 읽어야 합니다.

례; 훌련, 글로자, 달련, 철리마, 설로반, 철리 말리, 괄리원, 골란으로 읽습니다.

2. 옳, 뚫, 끓, 닭, 싫, 잃

△옳다—네 말이 옳다.

△뚫고—곤난을 뚫고 행군했다.

△굶고—남조선 아이들은 배를 굶고 있다.

△끓는—끓는 물은 식혀서 먹어야 한다.

△싫다—나는 그런 나쁜 일은 하기 싫다.

△잃고—아동단원 리 화순 동무는 일제놈들의 고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비밀을 지켰다.

학습 문제 풀이

2. 《ㅀ》 받침이 든 단어를 모두 찾아 써 보시오. 그리고 그 단어들로 단문을 지으시오.

【학습 문제 3】

산 수 (중등반 1 학년)

분수 승법에서도 완수 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칙, 결합칙, 분배칙이 성립됩니다.

① 아래의 문제들에서 어느 것이 분수 승법의 성질을 정확히 리용하였는가를 말해 보시오.

(ㄱ) $\frac{4}{5}\times\frac{2}{3}=\frac{2}{3}\times\frac{4}{5}$

(ㄴ) $\frac{4}{5}\times\frac{2}{3}=\frac{5}{4}\times\frac{3}{2}$

(ㄷ) $\frac{6}{8}\times\left(\frac{10}{16}\times\frac{22}{20}\right)=\left(\frac{6}{8}\times\frac{10}{16}\right)\times\frac{22}{20}$

(ㄹ) $\frac{6}{8}\times\left(\frac{10}{16}\times\frac{22}{20}\right)=\left(\frac{6}{8}\times\frac{16}{10}\right)\times\frac{20}{22}$

(ㅁ) $\left(\frac{5}{3}+\frac{2}{3}\right)\times\frac{5}{8}=\frac{5}{3}\times\frac{5}{8}+\frac{2}{3}\times\frac{5}{8}$

(ㅂ) $\left(\frac{5}{3}+\frac{2}{3}\right)\times\frac{5}{8}=\frac{5}{3}\times\frac{2}{3}\times\frac{5}{8}$

② 다음 문제를 계산해 보지 않고 어느 것이 큰가를 말해 보시오.

200과 $200\times\frac{3}{4}$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4】

물 리 (중등반 2 학년)

압력이란 두 물체가 서로 접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1) 액체의 어느 한 부분에 압력을 주었을 때 압력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2) 액체 속의 압력은 깊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3) 같은 깊이에서 액체의 압력은 어떠합니까?

【학습 문제 5】

지 리 (중등반)

① 우리 나라의 4 대 명산들과 5 대 강들을 적어 보시오.

② 아래에 적은 지방의 명산물을 적어 보시오.

개성, 안악, 벽성, 녕변, 삼방, 무산, 회령, 신포, 김책, 북청, 아오지.

【학습 문제 6】

력 사 (중등반 3 학년)

1929년～1931년의 대표적인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으로서는 어떤 운동들이 있었습니까?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3〕

① (ㄱ)가 맞고 (ㄴ)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승법 성질의 하나인 인수를 바꾸어도 그 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ㄷ)가 맞고 (ㄹ)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인수를 어떻게 결합해서 승하여도 그 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ㅁ)가 맞고 (ㅂ)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합(혹은 차)에 어떤 수를 승할 때에는 각 가'수(혹은 피감수와 감수)에 이 수를 승하여 얻은 적을 가(혹은 감)하면 된다는 성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200\times\frac{3}{4}$이며 작습니다.

그것은 승수가 진분수일 때는 그 적은 피승수보다 작아지고 승수가 가분수일 때는 그 적은 피승수보다 작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습 문제 4〕

(1) 액체의 압력은 그와 접촉하는 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내의 모든 곳에 작용합니다.

그것은 액체 내의 한 점에서 압력이라는 것은 그 점을 지나는 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여러 가지 위치를 차지하므로 액체 내의 한 점에서의

(《학습 문제 풀이》 해답)

압력은 모든 방향에 작용합니다.

(2) 액체 내부에서의 압력은 깊을수록 더 커지는데 그것은 웃층에 있는 액체가 아래층에 있는 액체를 내리 누르기 때문입니다.

(3) 같은 깊이에서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액체의 압력은 같습니다.

액체 내부의 압력은 액체의 비중에다 액체의 깊이를 승한 것과 같습니다.

〔학습 문제 5〕

① 우리 나라에는 세계에 이름난 경치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 중 4 대 명산은

금강산(1638m),
묘향산 (1909m),
구월산 (954m),
지리산(1915m)입니다.

5 대강—압록강(790.4km), 두만강(520.5km), 대동강(431.1km), 한강(481.7 km), 락동강(525.2km)

②개성 (인삼), 안악(목화), 벽성(감), 녕변(비단), 삼방(약수), 무산(들쭉), 회령(백살구), 신포(명태), 김책(대리석), 북청(사과), 아오지(석탄).

〔학습 문제 6〕

원산 로동자들의 총파업
(1929년 1월)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폭동
(1930년 6월)

단천군 농민들의 폭동
(1930년 7월)

지층 이야기

(3)

중생대에는 태평양 주변에서 큰 지각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우리 나라는 바로 태평양의 서쪽 기슭에 있기 때문에 지각 운동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서평양역 부근에서 잘 볼 수 있는 습곡은 이 때에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평안 남도, 황해 남도 및 황해 북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일어 났습니다.

중생대에는 땅이 갈라지면서 지각에는 틈들이 생기였는데 이 틈을 통하여 땅 속에 있던 돌물이 올라 와서 화성암이란 돌이 되였습니다.

화성암들 중에서도 특히 그것의 일종인 화강암이 많이 생겼습니다. 양덕, 고원, 개성, 룡강, 구성, 강계, 만포, 수안, 홀동, 해주, 원산, 단천, 서울 같은 데서 화강암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중생대에 생긴 이 화강암을 지금 건축 재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양의 혁명 박물관, 대극장의 큰 기둥들, 대동강 유보도 등은 거의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생대에는 화산도 여러 곳에서 터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지각 운동이 크게 일어 나고 땅 속에서 화성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땅 속 보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땅 속 보물이 대단히 많으므로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은금 보화 가득찬 《지하 자원의 표본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가 중생대에 지각 운동을 많이 받아 지표면 가까이에 화성암과 함께 여러 가지 광물질 성분들이 솟아 나온 까닭입니다.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긴 것도 중생대였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이런 바다가 모두 륙지로 있었는데 이 륙지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바다가 생겼습니다.

중생대 이전에는 지금의 인도, 호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남극 대륙이 모두 한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남반구에 큰 대륙이 하나 있었고 북반구에는 아세아, 구라파 및 북아메리카 대륙이 또한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대륙과 남반구의 대륙 사이에는 좁다란 바다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의 지중해였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대 말기에 인도양 부근의 륙지가 깨지고 인도가 남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도는 남극 대륙과 호주 대륙으로 떨어지게 되였습니다. 한편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서쪽으로 떨어져 가서 대서양이 생긴 것입니다.

인도가 북쪽으로 이동해 간 관계로 인도 북쪽에 있던 바다(옛날의 지중해 동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습곡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습니다. 한편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서쪽 부분이 밀리여 이 두 대륙의 서해안에 남북 방향의 긴 습곡 산맥이 생겼습니다. 세계 지리에서 배우게 되는 북아메리카의 코르딜레라 산맥,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만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세월은 벌써 1억 년 이상을 흘러 신생대로 들어 갔습니다.

신생대는 오늘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생대는 약 7천만 년 전에 시작되였습니다. 신생대의 모든 특징은 지금의 모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아세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구라파, 호주 및 남극 대륙이 있었고 오늘의 것들과 같은 면적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오늘과 거의 같은 형태로 있었습니다. 동해도 있었고 서해도 있었습니다.

중생대에 태평양 주변에서 대단히 심한 지각 운동이 일어 나던 것은 중생대 말기에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신생대에 들어 와서는 대부분 지역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그 운동이 계속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태평양의 서쪽 주변에 있는 깜챠뜨까로부터 꾸릴 렬도, 싸할린, 일본 군도, 류큐 렬도, 대만, 비률빈에 이르는 지역에서 습곡이 이루어지고 화산이 폭발했으며 단층이 생겼습니다. 이 지대는 지금도 계속 화산과 지진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생대 이전의 세계 지도

신생대에 우리 나라는 중생대 때보다 훨씬 조용했으나 그래도 약간의 운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에 화산도 일어 났고 지진도 일어 났습니다. 특히 신생대에 백두산 일대에서 많은 화산이 터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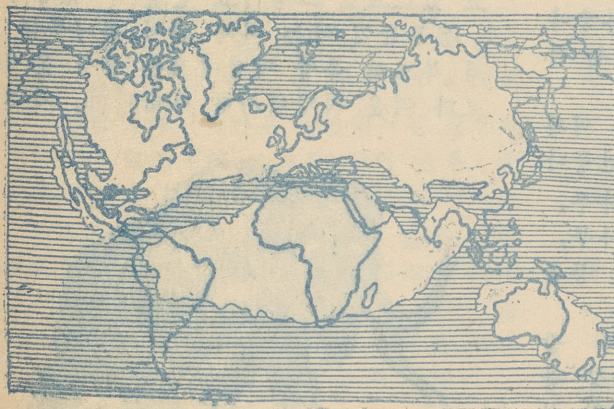
백두산 일대의 많은 화산들은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나란이 서 있습니다. 즉 백두산, 장백산, 소백산, 북포태산, 두류산 등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산들이 한 줄로 서 있을가요? 그것은 백두산에서 두류산까지 땅이 쭉 갈라져서 그 틈으로 땅 속의 불 같은 돌물이 올라 왔기 때문입니다. 량강도 일대에 대단히 많은 분출암인 현무암이나 조면암도 바로 이 때에 흘러 나온 돌물이 식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신생대의 화산은 다른 지방에도 많습니다. 칠보산, 명천과 화대군의 해안, 두만강 류역, 안변, 철원 일대, 통천, 신계, 곡산 등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생대에 뜨거운 돌물과 불을 내뿜던 우리 나라의 화산들은 지금에는 모두 멎고 말았습니다.

신생대에는 화산 이외에 다른 운동도 있었습니다. 즉 동해안을 따라 함경 산맥, 부전령 산맥, 태백 산맥들이 이 시기에 생겼습니다.

신생대에는 우리 나라가 포함되여 있는 태평양 주변 뿐만 아니라 지중해로부터 동쪽으로 깝까즈, 히말라야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방에서도 큰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중생대 초기에는 지중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게 큰 바다가 중생대 말과 신생대 초에 지각 운동을 받아서 히말라야, 깝까즈, 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맥을 이루고 바다는 현재의 지중해와 같이 대단히 작아졌

신 제3기 후반기의 밀림

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82 메터 높이의 주무랑마봉이라든가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은 지금으로부터 몇 천만 년 전에는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연의 변화란 정말 굉장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산들이 옛날에는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이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 바다에서 사는 조개들의 화석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생대의 생물도 현재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식물에서는 피자 식물이 가장 많고 동물에서는 포유류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생대에는 라자 식물이 식물들 중에서 으뜸이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로부터 피자 식물이 왕성하기 시작하여 신생대에 들어 와서는 이것이 전 세계의 륙지를 뒤덮게 되였습니다.

피자 식물이란 것은 사과나 배, 복숭아 등과 같이 씨가 두텁게 덮여 싸여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자 식물로서는 사과, 복숭아 외에 단풍나무, 버드나무, 포플라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추리나무, 벚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자 식물은 라자 식물인 소나무와 같이 퇴화하는 식물이 아니라 지금 한창 왕성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떠다 옮겨 심으면 잘 살아납니다. 오늘 평양이나 다른 도시들의 가로수로 네군도 단풍나무나 버드나무를 심은 것도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신생대에는 피자 식물만 있고 라자 식물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생대에는 중생대에 많이 번식하던 라자 식물 특히 소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생대에 많이 살던 고사리와 같은 종류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창한 밀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우기 제 3 기에는 기후가 덥고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피자 식물과 대부분의 송백류는 북극 지방에서 생겨나 가지고 차츰 남쪽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백악기 말부터 고 제 3 기에는 북극 지방이 오늘처럼 추운 것이 아니라 수림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는 지방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북극이 추워지면서 이러한 식물들이 차츰 남쪽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 때 우리 나라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척 더운 지방에서 사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가 온대 지방으로 되면서 열대나 아열대 식물들은 남쪽으로 밀려 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옛날을 살펴 보면 제 3 기에 우리 나라의 기후는 지금보다 더웠습니다. 그것은 함경 북도에 있는 신 제3기 층 가운데서 밤나무나 너도밤나무와 기타 우리 나라의 남쪽에서만 살고 있는 그런 식물 화석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아는 바와 같이 밤나무는 함경 북도의 북쪽 지방에서는 살지 못 하고 보다 더운 지방에서만 자랍니다. 제 3 기

신생대의 포유류

에 함경 북도 북부 지방에서 살던 너도밤나무는 지금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포유류가 많습니다. 포유류란 것은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면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포유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토끼, 소, 말, 돼지, 양, 염소, 개, 고양이 등의 가축들과 산토끼, 노루, 사슴, 다람쥐, 범, 메'돼지, 곰 등 산'짐승들도 모두 포유류에 속합니다.

포유류는 고 제 3 기부터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유류가 륙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사는 포유 동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로공 아저씨들은 무게가 70 톤이나 되는 큰 고래를 잡았는데 이것은 포유 동물입니다. 이 고래는 명태나 잉어처럼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입니다. 이 외도 물에서 사는 포유 동물로서 물'개를 들 수 있습니다.

제 3 기에는 괴상한 포유 동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것은 만모스였습니다.

최근 함경 북도 화대군과 두만강 류역에서 만모스의 화석이 발굴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도 옛날에는 이런 동물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포유류와 함께 신생대에는 날아다니는 새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백만 년 전인 제 4 기에 생겨 났습니다. 사람은 류인원이란 원숭이 종류에서 발전하여 오늘과 같이 높은 문화와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신생대에는 바다에도 대단히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조개류, 골뱅이류, 고기류 등입니다. 함경 북도 길주에는 조개와 골뱅이 화석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지방이 제 3 기에는 바다에 잠겨 있었고 그 바다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고 제 3 기와 신 제

원시 시대 사람들의 만모스 사냥

3 기 층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함경 북도 신유선, 회령, 온성, 경원, 아오지 일대에 넓게 분포되여 있으며 통천, 봉산, 문덕 등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3 기에는 식물이 울창했기 때문에 석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함경 북도의 북부 탄전, 남부 탄전, 안주 지구 등 우리 나라의 각 지방에 있는 유연탄 (갈탄)은 모두 이 때에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지구의 발전 력사 특히 우리 나라 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동무들! 지구는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산천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이 옛날에는 어떠하였는가를 잘 알므로써 옛날에 생긴 땅 속의 보물들을 더 많이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 조국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됩시다.

소설

신호탄은 어디서 올랐나?

(3회)

김 룡 익　　　　그림 유 환 기

나는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달음으로 막 뛰였어요. 처음은 어디로 먼저 갈지를 몰라 헤덤비던 나는 곧 세포 위원장 아저씨가 떠올라 그 아저씨네 집으로 줄달음쳐 갔어요.

마침 위원장 아저씨가 집에 계셨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

너무 숨이 차서 미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금희네 집 있잖아요? 그 집이 간첩 소굴이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자 아저씨는 이미 알고 계신듯 아래'입술을 지긋이 깨물고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어

《이제야 걸려 들였군…그런데 어쩐다? 그새 놈들이 몸을 빼면…》

하고 초조한 빛을 얼굴에 띄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동안 놈들이 딴 데로 도망치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서겠지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아저씨, 내가 먼저 그 집에 가겠어요. 가서 망을 보겠어요.》

아저씨는 또 생각하는 빛이더니 이어 결심하듯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먼저 가거라. 내 곧 내무원 아저씨들과 갈테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놈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알겠니?》

《네!》

나는 단숨에 고개'마루를 넘고 또 내'가를 건너 다시 금희네 집으로 달음박질쳐 갔어요. 가쁜 숨을 미처 내쉬지도 못하고 말이예요.

《금희야!》

내가 숨이 차서 다급히 찾았어요. 그런데 금희는 없지 않아요. 어디 갔을가? 내가 또 금희를 찾으려는데 이 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 석필 놈이 서둘러 마당에 내려 섰어요. 서두르는 품이 어디로 도망치자는 모양 같았어요.

(어쩔가?)

난 막 안타까와 하다가 저 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애써 용기를 내며 또 불렀어요.

《금희야?》

《누구냐?》

겁에 질린듯한 강 석필 놈이 나를 보자 흠칠 놀라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 엉?》

《놀러 왔어요.》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참아 가며 태연히 말했어요. 그러자 이 놈은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 나의 아래우를 이상스레 훑어 보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날 알아 보지 못 한 것이 분명해요.

《여긴 너와 놀 애가 없다. 어서 썩 다른 데나 가거라……》

그 놈은 눈을 흡뜨고 잔뜩 나를 노려 보고는 어디론가 달아날 차비였어요. 난 막 속이 달아 올랐어요.

(어서 아저씨들이 왔으면……)

그런데 아무리 바깥 동정을 살펴 보아야 오는 기척이 없었어요. (어쩌면 좋아…) 난 너무 안타까와 막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세포 위원장 아저씨의 말씀 대로 이 놈을 도망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내 임무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여 말했어요.

《금희는 어디 갔나요?》

《없다 없어!—》

그 놈이 대문을 열고 밖을 나서려는 순간 퍼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이 그럼 어쩌나 오늘 공연 시간이 달라졌는데 그 앤 괜히 헛고생을 하며 기다리겠네?》

하고 애가 타는 척 하며 슬쩍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놈은 나가던 발'걸음을 돌리며 얼른 나에게로 다가 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공연이 그럼 늦냐?》

《네…준비가 미처 안 돼서……》

《그럼 몇 시부터 하냐?》

하고 다우쳐 묻는 강 석필 놈의 얼굴에는 음흉한 빛이 어려 있였지요.

《몇 시라구요? 아이참 몇 시라더라…》

나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듯 연신 눈을 깜빡거렸어요. 그러자 그 놈은 살기띈 웃음을 얼굴에 지으며 날 구슬르는 게 아니겠어요.

《참 넌 용키두 하다. 듣자니 넌 노래두 잘 부른다더라. 이 번에 네 노래를 꼭 들어야겠다. 그래 오늘 공연이 몇 시부터지?》

이 놈의 앙큼한 검은 속을 알고 있는 나는 시간만 지체시키느라고 이렇게 물였어요.

《꼭 오시겠어요?》

《그럼, 꼭 가구 말구…》

《정말이요?…》

《그럼…그래 몇 시부터냐?》

이 놈은 속이 달아 연송 시간만 따져 묻는 거예요. 난 이 놈에게 애를 먹이려고 자꾸 딴전을 불였어요.

《꼭 오시겠죠?》

《꼭 가구말구…그래 몇 시부터지?》

《참 몇 시라더라!……》

나는 자꾸만 이렇게 애를 먹이며 시간을 지체시켰어요. 처음은 나를 구슬려도 보고 또 역증을 내기도 하던 이 놈은 내가 종시 바른 대로 말을 하지 않자 나중에는 벌컥 성을 내며

《너 정말 말하지 않을테냐?》

하고 내 덜미를 움켜 잡으려는 순간

《꼼짝 말아!》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내무원 아저씨들

이 마당에 들어 섰어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놈을 꽁꽁 묶고 있는데 금희의 양아버지가 별안간 세포 위원장 아저씨의 팔에 매달리며

《난, 난 죄가 없수다. 제발, 나 나만은…》

하고 거의 울'상이 되여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였어요.

그 놈들이 두 내무원 아저씨에게 끌려 나가자 나는 통쾌해서 세포 위원장 아저씨께로 달려 갔어요.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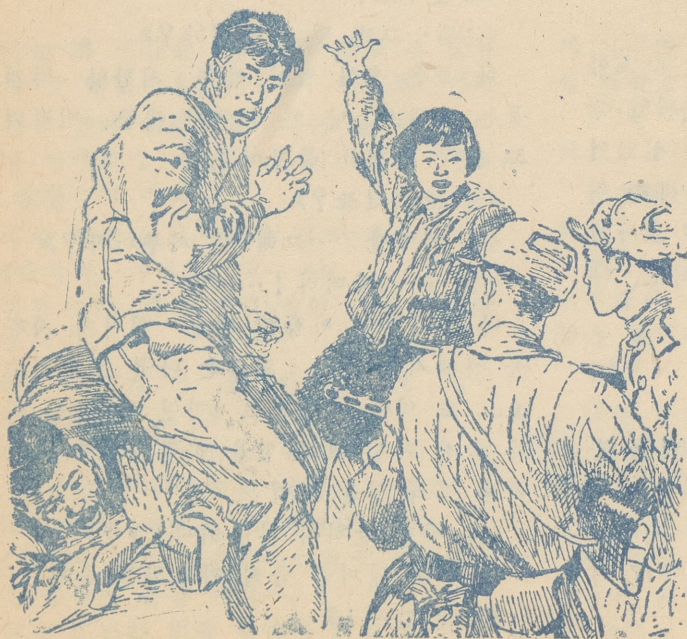
《순이야…》

세포 위원장은 와락 나를 자기 품에 열싸 안았어요.

《장하다…장해!》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미처 알려 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번 했구나. 우린 금희가 알려 줘서 미리 기미는 채고 있었지만……》

《금희가요?》

난 놀라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럼, 그래서 우린 강 석필 놈을 잡자고 얼마나 애쓴 줄 아니? 이 집을 점 찍어 놓기는 했지만 딱힌 모르고 있었단다. 그런데 네가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금힌 어디 갔나요?》

《이제 올게다.》

조금 있으려니까 금희가 막 숨이 차서 달려 왔어요. 그 애도 내무원 아저씨를 찾아 갔던 거예요.

금희는 미처 숨을 돌리지 못 하고 소리쳤어요.

《순이야…》

《금희야…》

아, 이 때의 금희의 얼굴은 얼마나 환희와 기쁨에 차 있겠어요. 난 이 때껏 금희의 이런 모습을 본 일이 없었어요. 늘 시름에 차 있던 그 얼굴이 말이예요.

난 후에야 안 일이지만 이 집에서 금희를 갔다 키운 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대요. 금희의 양아버지는 미국놈의 비행기 폭격에 친부모를 잃은 금희를 키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자는 데 있었다지 않아요. 금희의 양아버지는 강 석필 놈과 친척이 되는데 이전에는 큰 부자였대요.

그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금희는 새 옷 차림에 깜장 운동화까지 받쳐 신고 마을을 떠났어요. 나는 동구 앞까지 그 애를 바래다 주었어요.

금희는 초등 학원에 가거든요. 그 애는 연신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난 정말 너희들처럼 공부하구 싶었어, 맘껏 뛰놀고 싶었어.》

금희의 두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방울이 반짝거렸어요. 해'님도 방긋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끝)

우리가 성돌이네 분단을 찾아 갔을 때는 마침 하루 공부가 끝나고 분단 동무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 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춘성이가 《저— 옥이 동무!》 하고 부르더니 《인길 동무는 글을 아주 잘 쓰는데 한 번 보지 않겠어요?》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인길이는 《체, 왜 이래.》 하며 한 손으로 책가방을 덮쳐 끼고는 저 뒤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무엇을 썼어요? 시를 썼습니까? 작문을 썼습니까?》 하고 옥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가던 분단 동무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이는 눈이 동글해서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했습니다. 이 때 누군가가 《사실은 저— 인길이가 하도 글씨를 어지럽게 써서 놀려대느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였어요. 옥이는 기어이 봐야겠다면서 인길이를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남이가 《그것 참 별'일이다. 춘성이는 글씨를 생각하고 〈글을 잘 쓴다〉고 했는데 옥이는 시나 작문 같이 지은 글인 줄 알았나 보구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정말!》 하며 그게 무슨 까닭이냐고 남이 둘레에 모여 섰습니다.

남이는 《글》이라는 말에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즉 《말과 글》이라고 할 때 와 《글을 배운다》, 《글을 잘 짓는다》 할 때와 《글을 곱게 써라》 할 때의 뜻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글》이라고 하면 작문이나 문장, 학식 등 넓은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글씨》라고 해야 옳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이는 우리 말에는 이렇게 한 마디 말에 뜻이 여러 개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옳게 가려 쓸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머리〉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자요.》 하고 남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가 좋다〉 할 때는 슬기로움을 가리키며, 〈머리를 곱게 땋았다〉 할 때에는 머리칼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무엇의 처음이나 으뜸이라는 뜻으로도 〈머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이 번에는 남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미국놈들의 머리는 뭐라고 하니?》 그러자 영민이가 얼른 《그거야 미국놈의 대갈통이지 뭐.》 하고 대답했어요.

남이는 옳다면서 웃어른들이나 동무들 간에는 《머리》라는 말을 쓰지만 미운 놈을 욕할 때나 짐승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골통, 대가리, 대갈통》이라고도 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말에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되는 것에 따라 좋은 것에

쓰이는 말이 있고 나쁜 것에 쓰이는 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이것을 잘 가려서 써야 합니다. 가령 좋은 사람이나 존경하는 어른들, 그리고 우리의 동무들에 대해서 〈대가리〉라는 말을 쓴다면 이것은 큰 실례입니다. 동무들이 지난 번 〈소년단〉5호를 보아서 알겠지만 〈밥—진지〉, 〈먹는다—잡수다〉, 〈자다—주무시다〉 같은 웃어른을 높여서 하는 말들도 다 쓰이는 데가 다르면서 뜻이 같은 말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내를 건너 간다. 주의!》 누군가가 외치듯 우스개를 피웠습니다. 그러자 《얘, 이게 개울이지 시내냐? 시내야 좀 큰 강을 가리켜 말하지.》 하고 또 누가 대꾸해 나섰지요. 그러자 또 남이가 나서며 말했지요.

이 때 우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개울〉과 뜻이 같은 말로는 〈시내〉(얕고 좁은 물'줄기), 내(강보다 작은 개울), 〈도랑〉(작은 개울), 〈물'도랑〉 등이 있습니다. 시내나 개울이나 다 얕고 좁은 물'줄기라는 뜻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강이나 내라 하면 이보다 큰 물줄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알아 두어야 하겠어요.》

남이는 또 말에는 뜻이 반대되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밤—낮, 봄—가을, 여름—겨울, 덥다—춥다, 높다—낮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희다—검다, 달다—쓰다, 행복—불행, 열성—태만, 풍년—흉년…아까 어떤 것의 처음 또는 으뜸이라는 뜻으로 〈머리〉가 쓰인다고 했는데 그 반대인 맨 마지막 또는 끝찌라는 뜻으로 〈꼬리〉도 쓰인답니다. 이런 뜻이 반대되는 말은 〈작은 일을 못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 한다〉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마주 비기여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더 뚜렷이 나타내려고 할 때에 많이 쓰입니다. 그럼 내 이야긴 그만 하고 이 번에는 옥이 이야기를 좀 듣자.》 남이가 이렇게 말을 끊자 옥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난 동무들의 작문에서 본 몇 가지를 들어 말하겠어요. 〈으로서〉와 〈으로써〉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하고 물었어요. 분단 동무들은 모두 알듯 하면서도 까렷까렷 하다고 하면서 서로 얼굴들만 바라보았어요.

《〈—으로서〉는 〈동무는 소년단원으로서 그것도 몰라요!〉에서와 같이 〈소년단원인데 하는 뜻일 때 쓰이고 〈—으로써〉는 〈연필로써 그린 그림〉에서와 같이 〈연필을 가지고 (써서)하는 뜻으로 쓰일 때 쓴답니다. 또 보통 〈하므로〉 뒤에는 〈서〉가 와서 〈하므로서〉로 되고 〈함으로〉 뒤에는 반드시 〈써〉가 와서 〈함으로써〉로 쓰인답니다.》 옥이가 보니까 인길이는 글씨도 깨끗이 쓰지 못 하지만 이렇게 맞춤법도 여러 가지가 틀렸더랍니다. 그래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그들은 어느덧 마을 어귀에 다달았습니다. 성돌이는 마을로 들어 가자고 끌었으나 남이와 옥이는 부지런히 공부 잘 하라는 인사를 남기고 또 먼길을 떠났습니다.

☆

☆ ☆

박쥐는 어떻게 밤에도 잘 날가요?

동무들은 박쥐가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날아 다닐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박쥐는 어두운 그믐'밤에도 낮처럼 잘 날아 다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날아 다닐 수 있을가요?

박쥐는 입으로 초음파를 만들어 내 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사람은 1 초 동안에 16~2만 번 정도까지 진동하는 물체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더 많이 진동하는 소리는 듣지 못 합니다. 1 초 동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물체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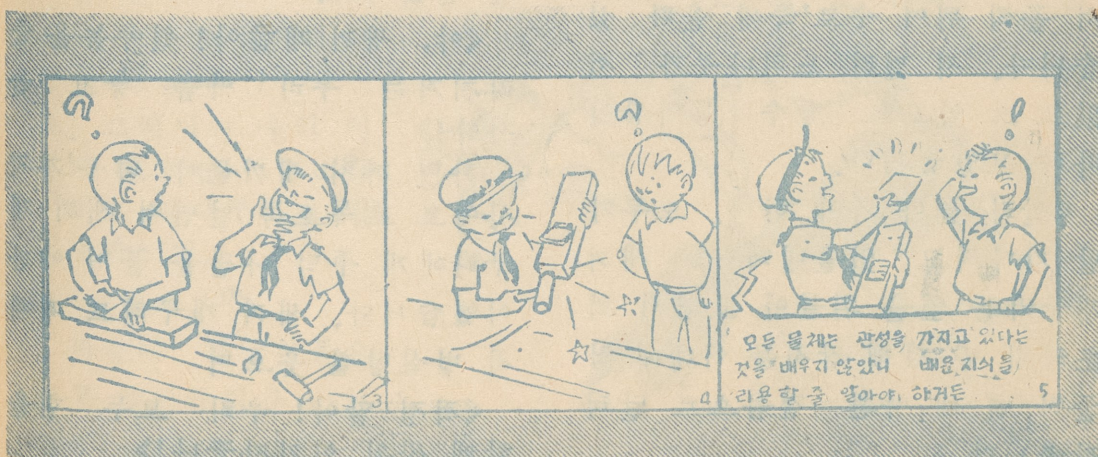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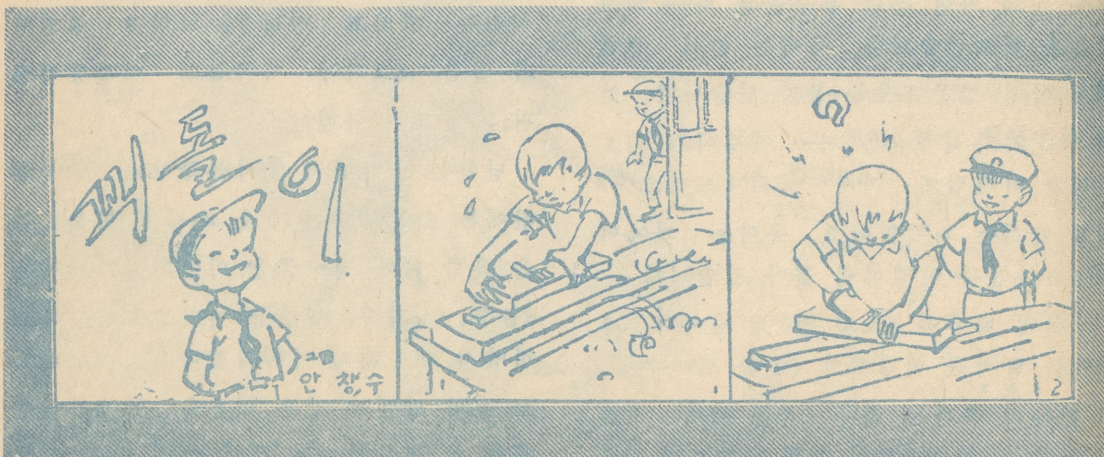
박쥐가 입으로 만들어 내 보내는 초음파는 앞에 있는 물체에 가서 부딪치면 되돌아 오게 됩니다. 박쥐는 이 되돌아 온 소리를 받아 가지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 내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고 잘 납니다.

초음파의 이런 성질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이 리용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초음파를 리용하여 바다 속의 물'고기를 알아 내여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있으며 그 밖에 인민 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를 많이 리용하고 있습니다.

(동화)

용감한 새끼 개구리

(3 회)

배 풍

새끼 개구리는 둥성이를 넘어 언덕'길에 올라 서자 석가랑'잎에서 훌쩍 뛰여 수로'둑에 올라 섰습니다. 저 멀리 느티나무가 서있고 그 앞으로 담수 양어장이 바라 보였습니다.

《빨리 돌아 가야 한다. 모두가 날 기다리고 있을텐데…》 새끼 개구리는 옆을 휘돌아 보면서 회초리에 꿴 담배 쌈지를 어깨에 척 둘러 멘 채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끼 개구리가 돌아 오자 동산의 새들은 모두 기쁜 낯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에구 참 새끼 개구리는 신통두 하지, 겁도 없다니까!》

《말해 뭘하겠소. 고놈이 참 웬간 내기가 아니야!》

하며 새들은 새끼 개구리를 한껏 추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보다 더 기뻐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 가는듯 하였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새끼 개구리가 얻어 온 담배 꽁초를 엄마 개구리도 두서너 개 꿀꺽꿀꺽 집어 먹었으니까요. 그래야 없던 힘도 부쩍부쩍 솟아 나서 원쑤를 치게 되겠으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대담하게 원쑤놈을 쳐부셔야 합니다.》

하며 엄마 개구리는 칭찬하는 새들에게 이렇게 답례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것은 까치였습니다. 엄마 까치랑 새끼 까치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야, 새끼 개굴아! 원쑤놈을 물리치거든 우리 마음 놓고 놀자야!》

하며 까치 새끼들이 나무'가지 사이로 포독포독 날면서 새끼 개구리에게 주먹 나팔을 불며 야단이였습니다. 새끼 개구리도 기뻐서 벙실벙실 웃으며

《걱정 말아!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싸워 이기자꾸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끼 개구리는 이럴수록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악한 뱀에게 잡혀 먹힐 번 한 그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간악한 원쑤-뱀이 증오스러웠습니다. (두고 보자, 내 기어이 원쑤를 갚고야 말테다.)

새끼 개구리는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새들과 개구리들은 뱀을 물리칠 데 대하여 모두 의논하였습니다.

《자, 뱀이 또 언제 나타날 지 모르니 언제나 그 놈을 쳐 부실 수 있게 차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덤벼 들기만 하면 힘을 합해쳐 물리쳐야 합니다.》

《옳소, 이젠 담배 꽁초도 얻어 왔으니까 날창이라도 더 준비합시다.》

모두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놈만 오길 바라며 일하러 나가지 않을 수야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어떻소?》

하고 딱다구리가 말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새들과 개구리들은 모두 딱다구리가 하는 말에 두 귀를 바싹 조이고 들었습니다.

《언제나 망을 잘 보고 신호를 잘 해 주는 휘파람새만 남아서 동산을 지키게 하고 우리들은 모두 일을 나간단 말요!》

《그것 참 좋겠소.》

《그랬으면 우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소.》

하고 모두 딱다구리의 말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까치님네 집 옆에서 망을 보다 그 놈이 나타나면 곧 신호를 울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뛰쳐 나와 당장 물리치고 말테야요.》

하며 새끼 개구리도 그의 말을 찬동하여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딱다구리의 말 대로

휘파람새만 남겨 놓고 망을 보게 하고 모두 다래끼를 하나씩 메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들과 개구리들은 뱀이 바위 밑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까치 새끼를 잡아 먹으려다 실패한 뱀은 이 번에는 새끼를 둥지 채 털어 가려고 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답니다.

《얍, 네놈들이 무슨 짓을 다 해낸대도 어림 없다, 어림 없어! 난 이 동산에 있는 골목 대장이다. 네놈들을 몽땅 잡아 먹고야 말걸! 네놈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이 동산은 내 동산이고 네놈들은 내 밥이란 말야!》

하고 표독스럽게 생긴 두 눈을 핼끗거리며 사르르 풀숲으로 숨어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대낮이였습니다.

새들은 모두 일터에 나가고 휘파람새만 늘 까치네 옆에 앉아 망을 보고 있었지요. 대낮에는 새들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소르르 꼬박 졸음이 온답니다. 휘파람새도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느라 했지만 대낮에는 저도 모르게 소르르 꼬박 졸음이 실려 야단이였습니다. 까치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모두 입술을 뾰족뾰족 내밀고 낮잠이 들고요.

뱀은 벌써 며칠째나 굶어서 배'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휘파람새에게 들킬가 두려워 마음 대로 습격하지 못 하였지요.

그러나 까치 새끼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 갔고 군침이 넘어 갈수록 배'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더 나왔으니까요. 기회만 엿보고 있던 뱀이란 놈은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엥이 모르겠다. 새들이 날아 들면 얼마나 날아 들겠다구? 날아 들면 모조리 닥치는 대로 덮치면 되지! 괜히 내 힘을 못 믿고 바보 놀음을 해!》 하고 뱀은 발끈해서 다짜고짜로 까치 새끼를 덮치려고 느티나무 우로 기여 올라 갔습니다. 휘파람새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반짝 뜨고 《호이호이 호르륵!》 하고 신호 소리를 내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새들이 새까맣게 모여 왔습니다.

《뱀이란 원쑤놈이 또 온게구나!》

새끼 개구리도 깜짝 놀라 눈이 둥글해서 땀을 빨빨 흘리며 뛰고 또 뛰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르겠어요? 보기에도 열룩열룩 흉물스럽게 생긴 뱀이 대가리를 곤두 세우고 혀를 날름거리며 느티나무 우로 올라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들은 이미 작전을 한 대로 제 자리끔 차지하고 뱀에게 공격을 시작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새들이 금시 내려 덮치며 쪼을 듯이 노려 보는 바람에 뱀은 더는 올라 가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색색 독기 오른 눈초리로 덤벼 드는 새들을 덮치려고 겨누었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분이 터져 나서 더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지요.

《이놈아, 당장 물러 가라! 네놈이 우리 동산에서 살아 낼 줄 아느냐?》 하고 새끼 개구리는 뱀과 딱 마주 서서 당돌하게 웨쳤습니다.

《뭐이 어째? 요 맹낭한 놈!》

독기 오른 뱀은 새끼 개구리가 담배를 먹고 있다는 것도 깜하게 잊어버리고 느티나무 우에서 쏜살 같이 뻗어 내렸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풀숲에 납작 엎디였다 훌쩍 뛰면서 입을 짝 벌리고 대드는 뱀의 대가리에다 즙액을 찍 갈겨 주었습니다.

《아이쿠!》

뱀은 입과 눈에 독한 담배 즙액이 들어 가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며 뱅글뱅글 돌아 갔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또다시 뱀의 대가리에다 담배 보자기를 탁 던졌습니다.

《액쿠! 요놈, 요 발칙한 놈.》

뱀은 눈을 감고 입을 넙쩍이며 막 디굴디굴 굴며 꼬리를 쳤습니다.

이 때에 송곳처럼 굳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딱다구리가 뱀의 눈알을 쪼아 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새들이 달려 들어 뱀의 대가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 갔습니다.

뱀은 대가리를 풀숲에 구겨 박고 몸을 또아리처럼 사리며 꿈틀거렸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이미 준비한 회초리로 뱀의 몸뚱이를

자꾸 후려 쳤습니다. 새들은 뱀의 온 몸을 쫏고 물어 뜯었습니다.

《어이구! 이놈들》

뱀은 다시 몸을 꼬며 더욱 발광을 하며 꿈틀거렸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뱀에게 봉변을 당했던 새끼 까치는 있는 힘을 다해 뱀의 몸뚱이를 자꾸 쪼아 살'점을 찍어 냈습니다. 뱀은 종내 이겨 내지 못하고 긴 몸뚱이를 쭉 뻗고 죽고야 말았습니다.

《만세!》

《만세!》

《용감한 새끼 개구리 만세!》

새들은 모두 기뻐 만세를 불렀습니다.

까치는 너무 기뻐 새끼 개구리를 등에 태우고 훨훨 날아 돌아가고요.

뱀이란 말만 들어도 푸들푸들 떨던 엄마 개구리도 논'배미에 들어 가 일을 하다 휘파람새의 신호 소리를 듣고 분주히 달려 나왔지요. 물푸레나무 채찍을 하나 들고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가 헐레벌떡 달려 나왔을 때는 벌써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온 때였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가 까치 등에 타고 훨훨 날면서 두 손을 짝짝 벌려 가며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뻐서인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새끼 개구리는 까치 등에서 훌쩍 뛰여 내려 엄마 개구리의 품에 안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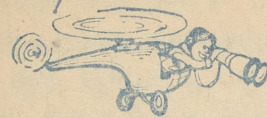
《장하다 장해, 살틀한 내 새끼야! 기어이 원쑤를 갚고야 말았구나!》

엄마 개구리는 새끼 개구리를 꼭 그러안으며 볼을 마주 대고 비볐습니다.

동산의 모든 새들은 용감한 새끼 개구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싸운다면 못 물리칠 원쑤가 없소.》 딱다구리가 흥분에 쌓인 채 한 마디 했습니다.

모두 《옳소!》 하고 박수를 치고는 두리둥실 승리의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끝)—

류 시 호

아세아 지도를 펴 보세요. 동남 아세아의 인도지나 반도를 살펴 보면 타이, 캄보쟈, 라오스 옆에 바다를 끼고 오른 쪽으로 길게 내려 뻗은 월남이 보일거예요.

우리는 지난 번 라오스 방문을 끝내고 이 번에는 싸우는 남부 월남을 방문했어요.

남부 월남은 같은 월남 땅인데 북위 17 도선 남쪽에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 앉아 이 나라를 절반으로 갈라 놓고 있는 곳이였어요.

우리는 남부 월남 땅에 들어 서는 첫 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 월남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다 우로 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미국 군함과 파괴되고 반 남아 타다 남은 집들, 시들어 넘어진 곡식들—이 모든 것은 미제와 남부 월남 괴뢰 도당들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가를 그 대로 보여 주고 있었어요.

지난날은 불란서 제국주의 놈들과 일본놈들이 기여 들어 이 나라 인민들을 못 살게 굴었지만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으로 놈들이 쫓겨 간 후에는 월남은 총선거의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 정부를 세우기로 되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번에는 우리 조선에서처럼 미제놈들이 기여들어 이 나라를 이처럼 남북으로 갈라 놓고 인민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해 침략자를 반대해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미제는 뻔뻔스럽게도 이러한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억누르기 위해 1961년부터 직접 전쟁을 벌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산'굽이를 돌아 한 부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나무 울타리를 빙 둘러 싼 부락 입구에는 총을 멘 경관놈들이 눈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울타리 우에는 철조망까지 설치되여 있었습니다.

미국놈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런 《전략촌》이라는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이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들과 손을 잡고 투쟁하지 못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놈들이 그 어떠한 간악한 방법을 다해도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떠선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남으로 려행하면서 더욱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나라의 옛 수도였던 유에 근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지방에 산다는 한 소년과 알게 되였습니다.

《애들아, 우리는 아이들도 싸움에 나서고 있단다! 우리가 묻어 놓은 지뢰에 걸려서 쓰러지는 원쑤놈의 꼴은 여간 재미있지 않아! 우리는 〈전략촌〉안에서도 비밀 지하 굴을 뚫어 놓고 인민 무장대와 련락하고 있단다.》하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부 월남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원쑤놈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촌》을 오히려 《전투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남 산맥을 따라 남으로 내려 갈수록 기후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년 평균 27 도가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우리는 미제 침략군 사령부와 그 앞잡이 괴뢰 도당이 도사리고 있는 사이공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는 미군과 남부 월남 괴뢰군 그리고 경관들이 돌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사관 근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요란한 폭발 소리가 귀청을 찢을듯 울렸습니다. 미군들과 경찰들이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고동 소리와 호각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대사관 앞에 빵'덩어리 폭탄 두 개가 난데없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폭탄인 줄 모르고 쥐다가 터져서 적지 않은 미군놈들과 괴뢰군놈들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사이공에서만도 거의 매일과 같이 일어 난단다. 며칠 전에는 미군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폭탄이 터져서 녹아나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구경을 하다가 폭탄이 터져서 녹아나고 해서 아마 미군 놈들이 죽지 않는 날이 없을 거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소년이 귀'속말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였습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빠져 나와 어느 뒤'골목으로 들어 가니 거기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침침하고 좁다란 골목에 촘촘히 들어 앉은 판자'집들에서는 헌 누더기로 아래'도리만을 겨우 가리운 사람들이 맥 없이 드나들고 있는가 하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이 쑥 들어 간 눈을 슴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교 문 밖에도 못 가 보는 아이들이였습니다. 하긴 지금 남부 월남에서는 100여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 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답니다. 요행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교원이 모자라고 교실이 모자라서 하루 한 시간 밖에 수업을 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미제는 남부 월남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쩍하면 졸개를 갈아치웁니다. 미제는 졸개 노고 딘 디엠을 작년 11월에 죽여 없애치우고 금년에 들어 와서도 두 번이나 정변을 일으켜 졸개를 갈아 앉히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을 못 살게 굴며, 싸움에 나선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의 투쟁을 억눌러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제놈들과 남부 월남 괴뢰 군대는 하루에 평균 100여 회에 달하는 작전을 벌려 놓고 독이 들어 있는 화학 물질까지 쓰고 있습니다.

놈들은 천여 개의 감옥을 설치하고 37만여 명의 남부 월남 인민들(그 중에는 8천여 명의 아이들도 있다.)을 가두어 넣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독약으로 죽였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놈들이 바로 남부 월남에서도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 백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가 갈리였습니다.

우리는 원쑤에 대한 치떨리는 증오심을 금치 못 하면서 메콩강을 따라 삼각주로 갔습니다.

삼각주는 메콩강 하류인 남부 월남의 남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옛적에 이 지역은 아득히 뻗은 바다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메콩강이 흐르면서 모래를 실어다 쌓아 놓아 오늘과 같은 삼각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곳 어느 부락에 들렸을 때 지난 주에 있었던 전투 흔적을 력력히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 땅크가 박살이 난 대가리를 땅에 처박고 넘어져 있었으며 절반 남아 타 버린 헬리콥터와 양키의 철갑모가 여기 저기 너저분히 나딩굴고 있었습니다.

미제 침략군과 남부 월남 괴뢰군이 이 전투에서 얼마나 무참히 녹아났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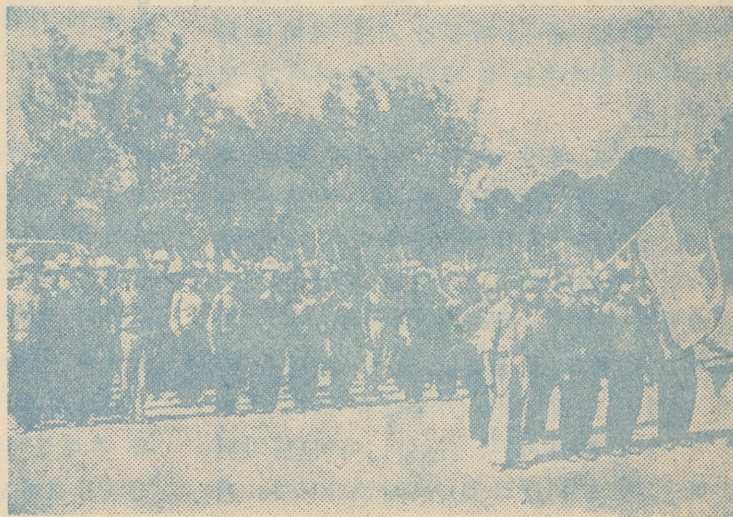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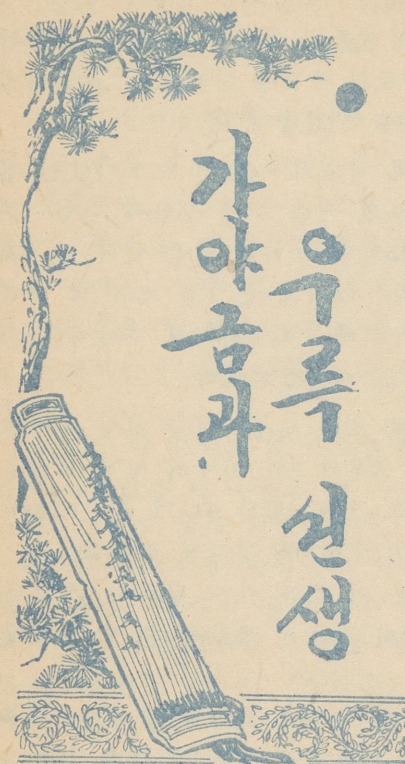
이것을 보며 우리는 지난 8월 초에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침략했다가 녹아난 11 대의 미국 비행기들의 몰골이 떠올랐습니다.

이 곳 인민들은 인민 무장대와 한몸이 되여 원쑤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미제가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일으킨 지난 3 년 동안에 인민 무장대는 25만에 달하는 적을 죽이거나 포로했습니다. 그리고 근 1천 대의 적 비행기를 떨구거나 격상시키고 3만여 종의 각종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령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해방시키고 남부 월남 41 개 주 가운데 이미 39 개 주에 주 정권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이 곳에 와서 비로소 웃음과 노래가 넘쳐 흐르는 생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기폭에 오각별을 새긴 남부 월남 민족 통일 전선의 기'발이 그들의 머리 우에서 더욱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남부 월남 사이공—기아빈 지구 인민 무장 대원들.

가야금과 우륵 선생

평양 음악 대학 민족 음악 연구소
최 장 훤

지금으로부터 1,400 년 전 3 국 시기(고구려, 백제, 신라) 락동강 서남 쪽에는 가야국이라 불리우는 6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 상에서 꺼지지 않는 재능 있는 음악 예술가인 우 륵 선생은 바로 이 여섯 개 가야국 가운데서 제일 큰 가야인 대가야국의 성열현(청풍군)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맑으며 진실하고 꾸준한 선생은 음악을 즐겨 거기에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라서 이 나라의 악사(나라의 음악을 지도하는 선생)가 되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진실하고 슬기롭고 뛰여난 재능은 온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가야국의 국왕인 가슬왕에게까지 깊은 사랑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마침내 오늘 우리 나라 민족 기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야금을 만들어 내고 가야금에 필요한 열 두가지의 악곡을 만들어 내여 우리 나라 민족 음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야금을 연주하며 민족 음악을 시위할 때마다 우 륵 선생을 생각합니다.

선생이 민족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을 때는 마침 신라가 우리 나라를 통일하던 시기입니다.

소란한 가운데 선생은 사랑하는 자기의 악기를 안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곳 저 곳을 방황하던 끝에 선생은 마침내 랑성(지금의 충청 북도 청주 지방)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몸을 감추고 사랑하는 제자 니문이와 함께 음악을 즐기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기원 551년 당시) 신라 24 대 왕인 진흥왕이 청주 지방을 돌아 보던 길에 우 륵이와 그의 제자인 니문이 음악을 잘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였습니다. 왕은 곧 그들을 특별히 초대하여 하림궁이란 궁전에서 음악을 연주케 하였습니다. 우륵과 그의 제자인 니문은 신라가 나라를 통일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오른 새 시대에 맞는 훌륭한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6 가야국을 모두 통일한 이 강대한 신라의 국왕으로서도 이러한 재능 있는 음악을 처음 들어 보는 것이였습니다.

진흥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들의 음악을 꼭 후대들에게 배우게 하여 후세에까지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당시 신라의 작은 서울인 충주(주원경이라 함)에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인 기원 552년에는 법지, 계고, 만덕과 같은 음악에 소양이 있는 청년 세 사람을 보내여 우 륵에게서 음악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우 륵은 세 청년들의 소질과 기능을 헤아리여 계고에게는 가야금과 그 밖의 기악을 가르치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고, 만덕이에게는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 륵 선생은 단지 가야금 명수일 뿐만 아니라 성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선생은 또한 단순한 음악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음악 교육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고, 법지, 만덕 등 세 제자는 음악 학습을 마치고 서울 경주로 돌아 가자 곧 진흥왕 앞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왕은 이들의 노래를 감상하고 나서 《먼저 랑성(청주)에서 우 륵과 그의 제자 니문의 음악을 듣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며 대단히 만족하여 많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제가 하는 연주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으나 남을 그렇게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인간에 대한 참다운 애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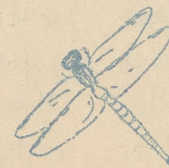
우 륵과 같은 애국적 음악가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 음악이 1,400 년 전에 벌써 신라에서 그처럼 꽃 필 수 있었으며 우 륵과 같은 애국적 음악 교육가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민족 기악의 화원을 이루는 가야금과 가야무가 1,400 년 전에 신라의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당시 선생이 창작한 가야금 곡은 무려 185 곡이나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나라의 민족 음악을 말할 때 가야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우 륵 선생은 우리 나라 음악 력사 상에서 고구려의 왕 산악, 리조 시기의 박 연과 함께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구한 음악 전통을 긍지 높이 자랑하는 우리의 음악은 로동당의 령도 하에 활짝 꽃피여 드디여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황금의 예술》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를 따라 천리마로 달리는 우리 소년단원 동무들은 이렇게도 재능 있는 선조들을 가지고 있음을 긍지 높이 자랑하는 동시에 우 륵 선생의 모범을 따라 그에 못지 않는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배우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몇 개일가요?

동무들은 잠자리의 눈이 만여 개가 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잠자리의 눈 안에는 또 작은 눈이 12700 개나 있답니다. 이것을 복안이라 합니다. 이 잠자리의 작은 눈알들은 혼자서는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눈알들은 2 메터 밖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의 수 많은 눈들은 2 메터 거리 안에서는 어떤 물체든지 약간씩만 움직여도 곧 볼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는 잡기 힘든 것입니다.

물리 학자 마이클 파라데이

전 성 락

전기가 없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인류의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우리 생활에 널리 쓰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먼 옛날이 아니며 불과 100여 년 좀 남짓합니다.

특히 재능 있는 물리 학자이며 화학자인 마이클—파라데이가 자석이 쇠를 끄는 작용을 전기로 바꾸는 학설을 내 놓은 다음부터 물리학은 더욱 빨리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기를 많이 일으켜 사람들의 문화적인 생활과 생산에 리용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파라데이의 커다란 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물리 학자들의 왕》이라고 한 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라데이는 1791년 9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야장'간 로동자의 아들로 태여 났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도 변변히 다니지 못 하였습니다. 그는 초급 학교를 좀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 한 채 열 세 살의 어린 몸으로 제본소(책 매는 공장)로 동자로 들어 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리 공부에 아주 흥미를 가졌습니다. 짬만 있으면 제본소에 오는 책들을 골라 읽었으며 힘든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는 책 읽는 것으로 밤을 새우군 하였습니다.

그가 책을 보고 있을 때에는 곁에서 누가 불러도 알지 못 하였으므로 그를 부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서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벌써 열 다섯 살 때에 혼자 공부를 하여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생들이 보는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라데이는 동무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하였고 혼자 공부하여 얻은 지식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제본소에 오는 학자들을 따라 다니며 자주 물어 보군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알지도 못 하면서 시끄럽게 군다고 그들에게서 혹되게 비난과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열의에 불탄 파라데이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여 파라데이는 저명한 화학자이며 그 당시 영국 왕립 과학 협회(왕의 권한 밑에 있는 과학원)의 위원장이던 데뷔의 실험실 조수로 되였습니다. 데뷔의 일'손을 도우면서 파라데이는 자연에 숨어 있는 비밀을 알아 낼 생각으로 혼자 대담한 실험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실험에서 폭발이 일어 나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얼굴에 화상을 입은 때도 있었습니다.

파라데이가 처음 염소(cℓ)가스를 불붙이는 데 성공하였을 때 데뷔는 조수의 이 성과에 대하여 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마감에는 이 성과를 자기가 한 것으로 공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뷔의 이러한 행동은 헛된 일이였습니다. 파라데이는 뛰여 난 노력과 재능으로 하여 친구들과 많은 학자들 속에서 차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여 1824년에는 왕립 과학 협회 회원으로 되였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파라데이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파라데이는 1 년이 지나서 벌써 연구실장이 되였고 다시 2 년이 지나서는 교수가 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데뷔의 자리까지 바꾸어 맡게 되였습니다.

파라데이는 왕립 협회에 있으면서 인민을 위한 과학 강연회에 자주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일요일마다 자기 실험실에 찾아 오는 어린 소년들에게 흥미 있는 과학 이야기를 자주 들려 주군 하였습니다.

파라데이는 굳은 의지와 인내성을 가지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831년 8월 29일이였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그는 아침 일찌기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실험을 계속하시겠습니까?》 하고 조수는 파라데이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엔더선(조수의 이름), 나는 역시 그 실험을 계속하겠소. 나는 이 실험을 10 번째 하고 있소.

이 실험의 목적이 나를 꽉 붙안고 해결을 바라오. 바로 그것은 **자기**를 **전기**로 바꾸어 놓는 문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자석에 의해서 전류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꼭 믿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한 파라데이는 여전하게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두고 애 쓰던 실험이 바로 이 날에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831년 11월 24일에는 전자기 감응 현상에 관한 자기의 위대한 발견에 대하여 왕립 협회 회원들 앞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전자기 감응 현상에 관한 이 위대한 발견은 그 후 전기 기술이 빨리 발전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1833년부터 1834년 동안에 파라데이는 전기를 통과시키는 액체(전해질)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법칙 (전기 분해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법칙은 새로운 과학—즉 전기 화학의 기초로 되였습니다.

1835년 파라데이는 또 자체 감응 현상이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라데이는 굳은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자연의 숨은 비밀을 하나 하나 찾아 내면서 자연의 모든 힘들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내 놓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파라데이는 70여 개의 과학 연구소 정식 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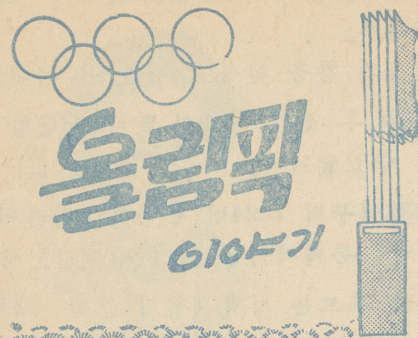
수십 년 간의 연구 사업은 파라데이의 건강을 깨뜨렸으며 힘을 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67년 8월 25일, 파라데이는 자기의 의자에 앉은 채 영원히 잠 들고 말았습니다.

력사에는 세계의 문명과 과학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라데이도 그런 과학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학은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동무들도 인류가 이룩한 지식의 보물고로 자기의 머리를 풍부히 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십시오.

기원 전 776년 희랍의 《올림피야》라는 곳에서는 마술,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체육 경기들이 진행되였답니다.

경기는 4 년만에 한 번씩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올림픽이란 말은 이 《올림피야》라는 곳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1894년 6월 파리에서 34 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세계 체육 관계자 회의에서 옛날 희랍에서 진행하던 경기의 형식을 살려 국제 올림픽 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첫 국제 올림픽 경기를 1896년에 희랍의 수도 아테네에서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가진 올림픽 대회는 17 차에 이릅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일본 도꾜에서 열리는 대회는 18 차 대회입니다.

현대 올림픽 경기는 여름철에 하는 경기 종목과 겨울철에 하는 종목으로 나뉘여 있어서 수 많은 체육 종목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하는 경기로는 륙상, 수영, 자전차, 체조, 격검, 레스링, 권투, 력기, 정구, 조정, 욧트, 까노예, 마술, 축구, 롱구, 배구, 사격, 수중 조약, 수구, 유도 경기 등이 있고 겨울철에 하는 경기 종목에는 속도 빙상, 혹케이, 스키, 휘거, 스키 조약, 썰매 등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1 등을 한 선수에게는 금메달, 2 등을 한 선수에게는 은메달, 3 등을 한 선수에게는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올림픽 기'발은 다섯 개 주를 상징하고 있는데 아세아주는 노란색, 구라파주는 하늘색, 호주는 록색, 미주는 붉은색, 아프리카주는 흑색을 표시한 다섯 개의 고리를 련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18 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는 100여 개 나라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이 번 18 차 올림픽 경기 종목들 가운데서 축구, 배구, 롱구만은 지역 별 예선 경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한 나라만이 참가하게 되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세아 지역 예선에서 축구와 녀자 배구에서 우승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아세아 지역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란, 남조선, 일본의 축구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나라 체육인들은 수 많은 경기 종목을 가지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의 체육 선수들은 천리마 영웅 조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휘날릴 그 날을 앞두고 더욱 힘차게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⑩《대장님, 그 피리를 함부로 뺏아 오다가는…

그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보배인뎁쇼, 그것을 뺏아 오면 그 놈들이 가만 안 있을 겝니다.

그들이 한 무리로 들고 일어나면…》

부하놈이 주춤거리자 두목이 벌떡 일어나며 불호령을 쳤다.

《무엇이 어째! 이 놈…그래 내가 몇 해를 두고 배워 준 그 재간들은 다 두었다 어데 쓰려느냐…힘으로 안 되면 꾀로 빼앗고 칼과 창으로 못 당하겠으면 둔갑술과 변신술을 쓰란 말이다!

이 놈 죽일 놈! 두목이 쇠몽치를 추켜들어 방금이라도 칠 것처럼 위협하는 바람에 부하 놈은 벌벌 떨며 빌어 올렸다.

《대장님 살려 줍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가서 빼앗아 오겠습니다.…제발》

⑪ 대장놈 앞을 물러 나온 부하놈은 암만 생각해도 좋은 수가 생각 나지 않았다. 피리를 잘못 빼앗다가는 무쇠 같은 복동이네 주먹과 마을 사람들의 낫과 괭이에 찢기울 것이고 안 가자니 두목이 당장 죽일 것 같았다.

긴 한숨을 쉬던 부하놈은 드디여 한 꾀를 생각하고 몸을 날려 공중에서 한번 재주를 넘은 다음에 막대기 끝으로 땅을 쿡 질었다. 순간 연기가《펑》하고 일면서 부하놈의 모습을 감추드니 이게 웬 일인가? 난데 없이 량반 하나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는 괴나리 보'짐에 피리들을 싸서 지였다.

《에헤… 이렇게 피리 장사로 슬쩍…》

⑫피리 장사로 가장한 부하놈이 《피리 사시유… 피리요.》하고 돌아 다니다가 복동이네 야장'간에 찾아 들었다. 《자. 멋진 피리인데 한 번 구경이라도 하슈.》 그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할아버지에게 자꾸만 사라고 권했다.

《우리 집엔 세상에 으뜸 가는 피리가 있는 걸요…》 급기야 복동이가 이렇게 말하니 《에헤헤…거짓말 말어, 이보다 더 좋은 피리가 어데 있을라구.》하고 부하놈은 간사를 떨었다.

《정말이예요. 한 번 보시겠어요.》 복동이는 거짓말이라는 바람에 분해서 살림'방에 들어 가 행복의 피리를 들고 나왔다.

⑬ 피리를 받아 쥔 할아버지가 천천히 한곡조 울리기 시작하자 어느덧 피리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야장'간 안에는 그윽한 향기가 차고 넘쳤다.

이 광경을 보던 피리 장사는 음흉하게 휘번떡이며 한 꾀를 생각해 가지고 뒤로 벌렁 나가 넘어졌다.

⑭ 그는 넘어져서 팔과 다리를 허위적거리며 《으흐…》 소리를 지르며 입에서는 게거품을 흘리고 눈알을 마치 숨지는 사람처럼 뒤집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겁이 난 할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어서 의사를 불러 오너라…어서.》 하고 복동이에게 소리쳤다.

복동이가 뛰여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부하놈은 《물… 물을 좀…》하고 갈그렁거리는 목구멍으로 모기 소리를 내였다.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급히 일어 나서 부엌으로 달려 갔다.

⑮ 이 때! 살며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던 부하놈은 일어나 앉더니 할아버지가 모루 우에 놓고 나간《행복의 피리》를 얼른 자기 것과 바꾸어 놓았다.

⑯ 복동이가 의사를 데리고 야장'간에 와 보니 피리 장사는 벌써 가고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떠다 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툭툭 털고 일어 나서《이제는 괜찮다》고 하며 떠나 갔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미처 그가 피리를 바꾸었다고는 짐작도 못 했었다.

《행복의 피리》가 사라지니 모든 것이 쓸쓸해졌다. 이제는 선녀들도 안 나타났고 동리 사람들의 일은 날로 힘들게만 되였다. 꽃도 시들고 걱정 끝에 할아버지는 몸져 눕고 말았다.

복동이는 불 꺼진 야장'간 기둥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하면 피리를 찾고 마을 인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다시 찾을 것인가?》

—양 만춘 장군에 대한 이야기—

김 유 방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644년 10월) 고구려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땅을 통일하고 몽고, 월남, 중앙 아세아 지역까지 자기의 손아귀에 넣은 당 나라 왕—태종은 고구려마저 삼키려고 5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 들어 왔다.

놈들은 고구려와 당 나라 국경인 료하(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의 동남쪽에 있는 안시성을 먼저 치고 다음에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성을 들이 칠 작정으로 미친듯이 밀려 왔다.

놈들은 50만 대군으로 안시성을 겹겹이 둘러 싸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안시성이 빼앗기는 날에는 고구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나라에서는 양 만춘 장군더러 이 성을 지킬 임무를 주었다.

양 만춘 장군이 거느린 고구려 군대는 실로 몇 십 배나 되는 놈들과 판가리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용감한 양 만춘 장군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군대들과 성 안의 인민들을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로 불러 일으켰다.

지혜 있고 용감한 양 만춘 장군은 묘한 계교를 꾸미여 놈들이 달려 들면 그 때마다 무리 죽음을 주었다.

장군은 원쑤들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면 나무와 돌로 날쌔게 수리하고는 고구려 인민들의 승리의 신심을 보여 주기 위하여 성 밖에다 대고 원쑤를 조롱하는 큰 소리로 웨치게 하군 하였다.

고구려의 조롱 소리를 듣자 당 나라 왕—태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리하여 그는《만약 성을 빼앗으면 성 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땅 속에 산 채로 묻어 죽이겠다》고 떠벌리면서 자기 군대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적들은 성 안에서 쏘는 고구려군의 화살에 맞아 무리로 쓰러졌다.

첫 며칠 동안의 싸움에서 벌써 수 많은 주검을 낸 당나라군은 갈팡질팡하기 시작하였다. 안시성은 빼앗을 수 없으니 그 대로 놓아 두고 곧, 바로 고구려의 서울— 평양성을 치자는 놈, 그래서는 앞뒤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으니 위험하다는 놈, 놈들은 저희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야단 법석이였다.

이런 기미를 알아 차린 양 만춘 장군은 또다시 묘한 계교를 꾸몄다.

그것은 성 안에서 닭과 돼지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게 하여 적들에게 성 안의 인민들의 승리의 신심을 보여 주자는 것이였다.

성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당나라 태종은 아니나 다를가 그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였는데 저렇게 닭과 돼지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으니 성 안에는 아직도 식량이 풍부하게 남아 있구나. 저렇게 닭과 돼지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걸 보니 오늘 밤에는 군사들을 잘 먹여서 밤에 우리들을 습격할 모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군대에게 경비를 단단히 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정말 싸우자니 한정 없이 새월이 걸릴 것 같은데 날'자가 오래 걸릴수록 자기 편이 질 것은 뻔한 일이고 그만 두고 돌아 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숨이 막힐듯이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 하였다.

그는 다음 날부터 새 작전을 시작하였다.

50만의 군대를 총 동원하여 안시성 동남쪽에 안시성보다 더 높은 흙산을 쌓아 올려서 그 우에서 성 안을 단번에 쳐 들어 가자는 작전을 생각해 냈던 것이다.

적군은 개미떼 같이 쓸어 나와서 흙과 돌로 산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양 만춘 장군은 흙산을 쌓는 쪽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흙산이 선벽보다 더 높아지면 적군이 공격하기는 쉬우나 고구려군이 방어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두 나라 군대 사이에는 돌과 흙을 쌓아 올리는 경쟁이 벌어졌다.

적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60일간 50만의 로력을 동원하여 흙을 포대에 담아서 쌓아 올렸다. 과연 성은 돌로 쌓음으로 빠르지 못하고 흙산은 흙으로 쌓음으로 매우 빨랐다. 드디여 흙산 꼭대기가 성벽보다 높아졌다. 매우 위급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지혜가 넘쳐 흐르는 양 만춘 장군은 묘한 전술을 생각해 내였다.

그 날 밤 장군은 힘 센 젊은 병사를 뽑아 성문을 가만히 열고 나가서 흙산 밑을 파게 했다. 장군의 명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밤 새도록 팠다.

날이 훤이 밝아 올 무렵 흙산은 《와그르르》하고 땅을 울리며 별안간 무너졌다. 성을 공격하려고 벌떼 같이 흙산 우에 올라갔던 침략군은 산 채로 흙 속에 묻히는 소동이 일어 났다.

무너진 흙산의 흙이 성벽으로 내 밀리여 성벽도 한 쪽이 무너졌다.

이 순간 양 만춘 장군은 전체 고구려 군사에게 총 돌격의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 병사들은 성문을 열고 성난 파도와도 같이 뛰여 나가 적군과 육박전을 하였다.

고구려 인민들도 군대와 힘을 합하여 원쑤놈들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 나섰다.

벌써 안시성 싸움은 두 달이 지났다. 지칠대로 지친 당 나라 군대는 이제 더는 고구려 군대를 당해 낼 수가 없었다. 당 침략군의 시체는 산 같아 쌓이고 피는 강물 같이 넘쳐 흘렀다.

양 만춘 장군은 친히 가렬한 싸움터의 앞장에 서서 지휘하였다. 물밀듯 번개치듯한 싸움 속에서 적장 태종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 것을 보는 양 만춘 장군은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북받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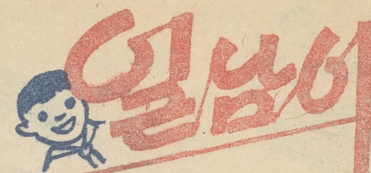
그는 비루한 원쑤의 우두머리 태종에게 활을 겨누었다. (우리 인민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 조국 땅을 더럽힌 놈아! 네놈을 그대로 돌려 보낼 수 없다) 양 만춘 장군은 당겼던 활을 놓았다. 순간 《앗》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적장 태종은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양 만춘 장군의 화살이 태종의 눈을 명중했던 것이다.

그 놈은 자기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구해 가지고 도망쳤다.

이리하여 당 나라 왕인 태종은 고구려 땅을 선물로 가지고 가는 대신에 애꾸눈을 선물로 가지고 돌아 갔다.

이렇듯 양 만춘 장군 지도 하의 고구려 병사들은 조그마한 성 하나로써 50여만의 큰 군대와 60여일 간이나 싸워 이기는 영웅성을 유감 없이 나타내였다.

이러한 영웅들의 빛나는 공훈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길이 길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년 선전 예술대

《소년 선전 예술대》활동은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님, 누나들에게 당 정책을 선전하며 그들의 '일'손을 더욱 흥겹게 해드리는 훌륭하고도 자랑찬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단, 분단 위원회는 《소년 선전 예술대》를 잘 조직해서 그들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년 선전 예술대》를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을가요?

《소년 선전 예술대》는 50~200 명 정도의 《대편대》 하나와 그 밑에 분단 별 또는 부락 별로 10~20 명 정도의 《소편대》를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편대에는 대장 한 명과 부대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 선전 예술대》에는 공부를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 모범이며 례절이 바르고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소년단원 동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년 선전 예술대》를 조직하는 모든 일은 단 위원회에서 의논하며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소년 선전 예술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가요?

◉ 근로자 아저씨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매 시기 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그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의 결정 내용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며 그것을 훌륭히 실천해 나가도록 선전하여야 합니다.

◉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미제와 일제, 지주, 자본가놈들의 온갖 책동을 폭로하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똑똑히 알려 줌으로써 원쑤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 항일 빨찌산들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아동단의 투쟁 내용을 가지고 해설해 주는 일.

◉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날마다 기적을 낳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과 소년단원들의 투쟁 모습,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공산주의적인 품성들을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과학과 기술, 문화, 예술 지식을 선전하며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정세 자료를 가지고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 선전 예술대》는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좋을가요?

《소년 선전 예술대》는 시기와 계절을 잘 고려해야 하며 선전하려 가는 곳이 도시인가, 농촌인가, 공장 지대인가, 광산 지대인가, 건설장인가, 바다인가 하는 데 따라서 노래, 춤, 동화 구연, 시 랑송, 재담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으로 흥미 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편대》 활동은 하나의 종합 예술 써클을 하는 형식이므로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시기에 맞게 제때에 준비하여 활동하기는 바쁩니다. 때문에 단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4월 15일, 5. 1절, 6. 6절, 8. 15, 공화국 창건 기념일, 당 창건 기념일 등 뜻깊은 명절과 기념일 등을 계기로 그 기념일에 맞게 재미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가지고 강당, 회관, 구락부, 선전실, 극장, 영화관, 야외 무대들에서 근로자 아저씨들을 모시고 공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편대》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준비해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소편대》는 학교의 교실과 운동장, 야외의

모두다 기계 체조를 합시다

(1)

기계 체조 운동은 우리의 몸을 튼튼히 하는 데 가장 좋은 체육 종목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체조를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동작이 빨라지며 또 모든 동작들을 정확하고 깨끗이 하는 데 습관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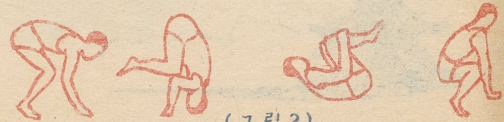
기계 체조에는 도수 운동, 철봉 운동, 평행봉 운동, 륜 운동, 안마 운동, 지지조약 운동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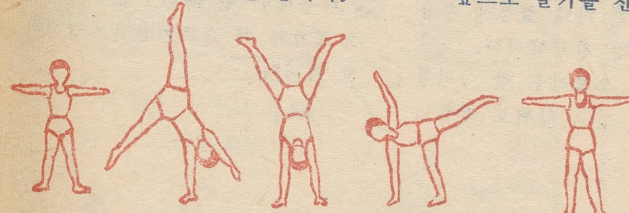
기계 체조는 처음 도수 운동과 철봉 운동, 평행봉 운동들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도 우선 도수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도수 운동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1) 도수 운동에서 처음에는 정확한 자세 운동들을 합니다. 례를 들면 팔 다리를 수평으로 앞으로 올리기와 옆으로 올리기, 다리를 옆으로 또는 뒤로 수평으로 올리기들을 합니다. (그림1)

(그림 1)

다음에는 다리 굽혀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굴기를 진행합니다. (그림2)

이 운동은 다리 굽혀 앉은 자세에서 팔을 펴서 땅에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머리로부터 굴기 시작합니다. 이 때 몸을 동굴하게 하고 굴어야 합니다.

앞으로 굴기를 한 다음에는 뒤로 굴기를 합니다. 뒤로 굴기는 앞으로 굴기와 꼭 같은 방법 대로 하는데 정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림2)

굴기 운동을 한 다음에는 돌기 운동을 합니다. (그림3)

돌기 운동에서는 처음에 팔 짚고 옆으로 돌기를 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다리를 자기의 어깨 너비로 짚고 몸은 곧바로 펴고 합니다. 이 때 몸은 항상 일직선에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림3)

다음에는 달리다가 팔을 펴 짚고 앞으로 돌기를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보통 7~8보 달리다가 빠르게 깔개(땅) 우에 팔을 펴 짚으면서 동작을 합니다. 이 때 다리를 뒤로 힘 있게 차 흔들어야 합니다. (그림4)

(그림4)

어떤 곳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아저씨들이 일하고 있는 기대 앞이나 작업장에서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 작업을 교대하는 시간을 타서 20~30 분씩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처음 손풍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다음에 선동적인 이야기나 연설을 하고 시도 읊고 노래와 춤, 재담, 짧은 극 등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잘 섞어서 재미 있게 하여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연설을 먼저 하고 노래 이야기, 노래 재담, 노래 스케취, 음악 무용극, 바라이데, 간단한 종합 써클 공연 등 형식으로 다채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작업반이나 소년단 단체 그리고 개별적인 근로자 아저씨나, 모범적인 소년단원의 활동 내용을 담은 그림극이나 환등극, 그림 이야기, 사진 전람판 등 직관물을 들고 나가 선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년 선전 예술대》의 프로 사이 사이에 그 곳 근로자 아저씨들이 준비한 프로를 섞어 가면서 노래와 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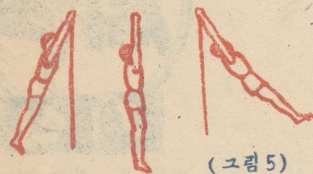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잘 하려면 단, 분단 위원회들이! 이 사업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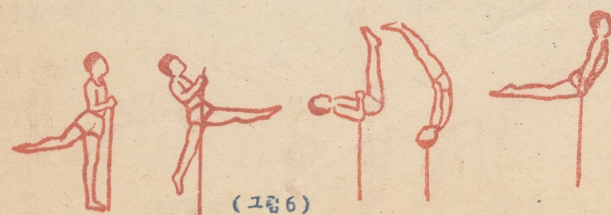
특히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을 직접 맡은 단, 분단 위원들과 대장, 부대장들은 대원들이 이 사업에 잘 참가하도록 위원회에서 늘 의논하고 잘 된 점과 잘 못된 점을 옳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 분단 위원회는 《소년 선전 예술대》가 떠나기 전에 미리 그 곳 근로자 아저씨들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보고 그에 맞게 활동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분단 위원회는 문학과 예술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소년단원들을 이 활동에 많이 끌어 들여 자기들의 생활을 담은 재미 있는 노래, 춤, 시, 재담, 동화, 짧은극 같은 것도 자체로 만들고 형식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

(2) 철봉 운동에서는 처음 바로 잡고 매달려 앞뒤로 흔들기를 진행합니다.

(그림5)

흔들기는 항상 발끝이 맨 먼저 앞으로 흔들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낮은 철봉에서 뒤로 돌아 오르기를 합니다. 이 운동은 철봉의 높이가 가슴팍 정도되는 곳에서 다리를 힘 있게 앞으로 흔들어 철봉 우로 넘기며 뒤로 한 바퀴 돌아 오릅니다.

다음에는 한 다리 철봉에 무릎 걸고 오르기를 진행합니다.

무릎 걸고 오르기는 한 다리를 철봉에 무릎 걸고 앞뒤로 흔들다가 뒤로 흔들릴 때 우로 올라 갑니다.

이 때 아래 다리를 뒤로 힘 있게 보내면 아주 쉽게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다리 깊이 끼여 오르기와 차 오르기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림6)

(그림7)

깔짝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희 부대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센 부대가 어느 부대이냐?
네… 네.. 승냥이 부대입니다. 목숨만…
117

통신 대대에서 하합니다.
련락 임무는 어데서 맡아 보느냐?
118

교환! 승냥이 부대에 대라. 승냥이 부댄가? 응. 나 참모장이야. 저쪽 동산 놈들이 오늘 밤 쳐 들어 온다는 소식이 왔다. 전투 준비를 하고 뱃족산에 나가 대기하라! 알겠지?
119

네. 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부대장
120

교환! 통신 대대에 대라. 통신 대대장이야? 나 참모장인데 1 보초소로 통신병을 빨리 좀 보내라!
121

저기 통신병놈이 오는군! 가면을 써야지 이놈! 넌 보초막에 들어 가 꼼짝 말고 서 있어라!
122

이것을 저쪽 동산에 가서 그놈들을 포위하고 있는 여우 부대장에게 전하라!
편지
넷!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123

124

저 놈을 처단하고 떠나야지….
땅 땅
으악
125

참모장이 보내는 겁니다.
126

부대를 거느리고 오늘 밤중으로 속히 돌아 올것 참모장 승냥이
127

참모장의 명령이다. 모두들 돌아 가자!
128

—한편 승냥이 부대에서—
깡충이한테서 전화를 받은 승냥이 부대장은 전투 명령을 내린다.
저쪽 동산 놈들이 오늘 밤 우리를 치러 온다. 이제 그놈들 물리치러 떠나야겠다.
129

뱃족산을 향하여 앞으로!
130

몸을 감추고 놈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131

나타났다!
쏘앗! 쏘앗!
132

뱃족산에 있는 적을 한 놈도 남기지말고 모조리 잡아라! 쏴! 쏴!
133

돌격 앞으로!
134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편이 아닌가?
앗! 너희들이 쏘았댔구나. 부대가 전멸됐어. 전멸이야
135

통쾌한걸 하하하….
136

(다음 호에 계속)

(속담)

△무른 감도 쉬여 가면서 먹어라.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얕은 물도 깊게 건너라.
△우물 들고 마시겠다.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첫 술에 배 부를가?

이 속담들은 무슨 일에서나 참을성이 있어야 하며 조급해 말고 덤비지 말라는 뜻입니다.

(군사 유희)

야간 습격 전투

이 유희는 밤에 마을 또는 들에서 할 수 있다. 유희는 15~20 명씩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습격조가 되고 다른 한 편은 방어조가 된다. 두 편은 서로 맞은 편이 모르게 자기 본부를 적당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습격조에서는 대장 한 명과 정찰병 3~4 명, 습격조 10~15 명 (그 중 습격반, 포착반, 장애물 해제반으로 나눈다.)을 정한다. 포착반은 적 보초병을 체포할 새끼줄을 준비하며 장애물 해제반은 손칼을 준비한다.

방어조에서는 대장 한 명을 정하며 본부 앞에 쌍보초를 세운다. 다음 나머지 인원은 3~4 개조로 나뉘여 본부를 방어하게 하고 방어조 앞 10~15 m 떨어진 곳에 보초병을 세운다.

방어조에서는 습격조가 습격해 오기 좋을 곳에 철조망을 친다. (철조망은 새끼줄을 느리고 드문드문 빈 깡통을 매단다.)

두 편이 준비가 끝나면 유희 지도자는 《전투 시작》 신호 나팔을 분다.

신호 나팔이 나면 습격조 본부에서는 정찰병을 내 보낸다. 정찰병은 적의 본부가 어디며, 방어는 어디어디에서 하며, 보초병은 어디에 서 있으며, 철조망은 어디에 늘여 있는가, 습격은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은가 등을 죄다 알아 와야 한다. 정찰을 하는 도중 적 보초병 또는 방어병을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하는 방법은 뒤로 가만히 가서 등을 치면 체포된 것으로 되며 등을 치운 동무는 말을 하지 못 한다.)

방어조에서도 습격조의 정찰병 또는 습격조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방어조에서는 습격조의 정찰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그들이 자기 본부로 돌아 간 다음 방어 진지와 보초병의 위치를 딴 곳으로 슬쩍 옮길 수 있다.

습격조 대장은 정찰병들의 정찰 보고에 의하여 작전 계획을 세운 다음 정찰 정형을 습격조원들에게 알려 주며 적 본부를 습격할 임무를 준다. 임무를 받은 습격조원들은 적의 본부를 습격하기 위하여 떠난다. 대장은 앞서 나가며 전투를 지휘한다. 습격해 나가다가 철조망이 앞에 놓이면 장애물 해제반이 앞장 서서 손칼로 새끼줄을 끊고 들어가며 보초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포착반이 앞장 서서 보초병을 사로 잡아야 한다. 모든 행동은 풀로 위장을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습격조원들이 적 본부에까지 습격해 들어 갔을 때에는 불의에 《손 들엇!》하고 웨치며 《만세》 소리를 크게 부른다.

방어조 원들은 숨어 있다가 습격조원들을 많이 잡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잡힌 습격조원들은 반드시 자기가 무슨 직위에 있다는 것을 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습격조의 대장을 잡으면 《만세》를 부른다.

전투는 어느 편에서든지 《만세》 소리가 나면 끝난다.

다음은 습격조가 방어를 하고 방어조가 습격조가 되여 다시 한 번 전투를 한다.

(인민반)

누가 꽃 이름을 더 많이 알가요?

이른 봄에 피는 꽃, 여름철에 피는 꽃, 가을철에 피는 꽃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그중에서 이른 아침에 피는 꽃, 대낮에 피는 꽃, 저녁녘에만 피는 꽃 이름을 따로 적으시오.

(중등반)

산과 들에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물 가운데서 열매를 먹는 산과실,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 약초, 버섯 등의 순서로 알고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다섯 가지 이상씩 들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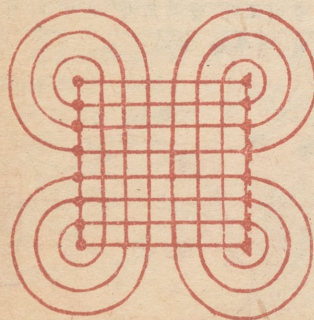
알아 맞히기

오른 쪽 그림을 보고 제대로 맞추어 보시오.

(놀음)

여덟바퀴 고누

노는 방법; 두 편은 서로 여덟개씩의 말을 놓습니다. 따 먹는 방법은 밖의 동그라미 길을 따라 돌면서 첫번 째로 마주치는 맞은편 말을 잡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맞은편 말을 많이 딴 편이 이깁니다.

잡지명 소년단 제 9 호 (류계 179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8 월 21일 발 행 1964년 9 월 1일

ㄱ—430457 값 35 전

이런 표식과 신호들을 알아 둡시다

일체 자동차들은 지나가지 못한다는 표식.

화물 자동차들은 지나가지 못한다는 표식.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표식.

소와 말 달구지들은 지나가지 못한다는 표식.

무한 궤도지들은 지나가지 못한다는 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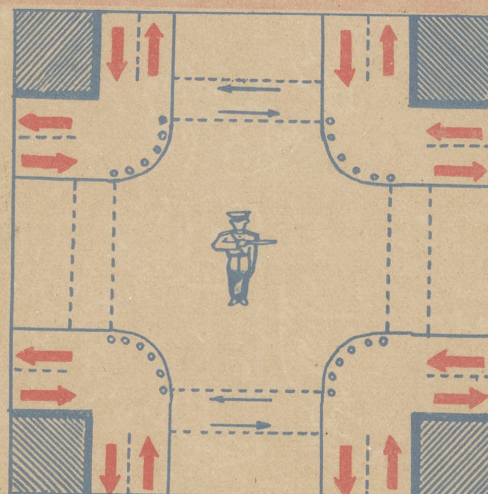
▲ 네거리의 조명 신호와 교통 정리원의 신호들.

① 네거리에 서 있는 교통 정리원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던 자동차나 사람들은 네거리를 건너갈 수 있다.

② 네거리에 서 있는 교통 정리원의 앞'뒤'면에서 오던 자동차나 사람들은 네거리를 건너 가서는 안되며 교통 정리원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설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한다.

③ 밤에 네거리의 조명이 푸른색 신호 일 때, 자동차나 사람들은 네거리를 건너 갈 수 있으며 붉은색 신호 일 때는 네거리를 건너 가서는 안된다.

④ 밤에 조명이 누런색 신호를 하였거나 낮에 교통 정리원이 신호봉을 어깨 우로 들었을 때 네거리를 건너 가려는 자동차나 걸어 가던 사람들은 정지 선과 보도에 서서 푸른색 신호 또는 교통 정리원이 신호봉을 내리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통 정리원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⑤ 교통 정리원이 신호봉을 앞으로 수평으로 폈을 때에는 왼쪽에서 오던 차들만 네거리를 건너 갈 수 있으며 걸어 가던 사람들은 교통 정리원의 뒤'면으로만 건너갈 수 있다.

▲ 기차,빼스를 타는 사람과 길을 걸을 때 지켜야 할 규칙들.

①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걸어 다녀야 한다.

② 보도로 걸어 가던 사람들이 자동차'길을 건너 갈 때에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잘 살피고 흰점으로 표시된 정해진 곳으로 건너 가야 한다.

③ 빼스나 자동차가 서 있을 때에는 차 뒤로 건너 가야 한다.

④ 정거장에 서 있는 기차의 밑으로 건너 가거나 철'길, 철다리 및 차'굴로 지나 다녀서는 안 된다.

⑤ 기차나 빼스를 타고 갈 때 위험한 장소에 나서거나 창 밖으로 몸을 내 놓아서는 안 된다.

⑥ 기차 또는 빼스를 타는 사람들은 출발 신호가 있거나 완전히 멎기 전에 오르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대렬을 지어 다닐 때는 자동차'길 오른편 옆으로 걸어 다녀야 하며 대렬이 25 명 이하일 때는 2 렬 종대로 서서 보도로 다녀야 한다.

철도와 도로가 서로 어긴 곳을 알리는 표식.

도로가 서로 어긴 곳을 알리는 표식.

도로가 급하게 구부러진 곳을 알리는 표식.

도로가 급하게 경사진 곳을 알리는 표식.

위험한 곳을 알리는 표식.

정기 간행물
번호 제13454호

기름 내는 나무들

분지나무

분지 기름은 먹는 기름 약품 만드는 원료. 고급 화장 비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잣나무.

잣나무 열매에서는 먹는 기름을 짜내며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고급 목재로 쓰인다.

생강나무

생강나무 기름은 공업에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머리'기름, 화장품을 만드는데 쓰인다.

어린 나무 가지는 약으로 쓰며, 어린 잎은 차 대용으로 쓴다.

가래나무

열매에서 먹는 기름을 짜내고 그 찌꺼기는 과자를 만드는 데 쓴다.

열매 껍질은 활성탄 원료로 쓰고 나무 껍질은 섬유 원료로 쓰인다.

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공업품 만드는 데 쓴다.

개암나무

개암나무 열매에서는 먹는 기름을 짜낼 뿐만 아니라 과자 원료 및 사료로써도 쓰인다.

수유나무

수유나무 열매에서 내는 기름은 먹는 기름, 머리'기름, 등화유로 쓰이며 또 피부병을 고치는 데 좋은 약품으로 쓰인다.

호두나무

호두나무 열매에서는 먹는 기름을 짜며, 여물지 않은 열매는 화학 공업 원료로쓴다.

잎은 약품을 만드는 데 쓴다.

초피나무

초피나무에서는 먹는 기름을 짜며, 잎과 열매는 향료, 비누, 양념으로 쓰인다.

말리운 열매는 약품을 만드는 데 쓴다.